

## “차별금지법, 신앙·헌법 가치와 충돌 우려”

### 국회사 차별금지법·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 열려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세미나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거룩한방과제통합국민대회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된 법적·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목회자와 법조인,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파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정치권 입법 움직임 우려 제기

행사는 홍호수 목사(거룩한방과제 사무총장,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조배숙 의원의 개회사와 박한수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이후 발제와 토론 순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발의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매우 긴박하고 우려스럽다”며 “지난 1월 진보당 손술 의원, 지난달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잇따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제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차별 금지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숨겨져 있다”며 “해의 사례에서도 다양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세부 내용, 특히 성별 정체성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알려질수록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가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국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악(毒藥)한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 ◆“차별금지법·젠더 이데올로기 사회적 영향 검토 필요”

격려사를 전한 박한수 목사는 서정홍 사인의 ‘누가 나 대신이라는 시를 언급하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은 분들이 있기에 사회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오판하지 않도록 세미나와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희 교수(거룩한방과제준비위원장,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관



세미나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이용희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 하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조영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설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거짓된 설문 조사에 넘어 가선 안 된다. 동성결혼을 성적지향으로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 가는 것이다. 차별 조항을 일절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방식에 따라 국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설문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은 공개하고, 정직하게 실문해야 한다. 이 일에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차별금지법의 폐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조장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이 말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분라구별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젠더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경우 헌법이 전제하는 양성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 규제를 포함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거룩한방과제 전문위원장,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차별금지법 법률적 비판’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내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교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항집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땅의 국민들과 통치자들이 이 악한 법을 제정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차별금지법 법적 쟁점과 국제 기준 논의

이어진 토론에는 주영섭 대표(반동성애 기독교시민연대 대표), 현숙경 교수(한국국립레신학대),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가 참여해 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영섭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성별 변경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언급했다. 그는 “성별 변경 요건이 완화될 경우 여성 전용 시설 이용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안 제정은 실제로 일어난 수많은 피해사례들

을 보더라도 결코 용인해선 안 되며, 이것은 우리의 가족과 다음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선임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숙경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된 UN 권고’와 관련된 법적 성격을 설명했다. 현 교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SOGI) 개념은 국제 조약에서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으로, 관련 문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불어 “국가의 법률은 국제 권고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법적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효성 박사는 차별금지법안의 법체계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신 박사는 “법안의 성별 정의 확대와 포괄적 금지 규정은 기존 법체계와 정합성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 남녀 분리 체계를 전제로 한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 금지 규정을 둘 경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거룩한방과제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오는 3월 13일에는 경기도 파주 오산리기도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오산리 연합철야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거룩한방과제 대표회장 아취임식은 3월 20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진행된다. 3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 100만 영혼 구원 위한 전국 복음화 전략 논의

###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 전국 지역대표단 워크숍 개최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성회 5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100만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국 지역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해 한국교회의 회복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는 핵심 전략회의의 성격이 띠며,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와 지도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 복음화 조직 구축 ▲지역별 전도운동 전략 수립 ▲100만 영혼 구원 운동 추진 ▲한국교회 연합 기도운동 확산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복음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운동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목회자 회개

기도대성회를 개최해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회개운동을 촉구했던 바 있다. 이 기도대성회는 코로나 이후 약화된 교회의 영적 역량을 회복하고 성령운동과 전도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목회자 중심의 회개운동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 같은 흐름을 통해 민족복음화 운동의 영적 기반을 다지고, 이어지는 전국 지역대표단 워크숍에서 조직과 전략을 구축한 뒤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로 이어지는 전국적 복음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907년 평양대부흥의 영적 전통과 한국교회의 민족복음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100만 영혼 구원과 2027년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해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북·중 체계 속에서 반복” >> 3면

[인터뷰] ‘일터교회 영역 주권’ 저자 김동연 목사 >> 7면

CGN ‘나침반Q’ “노아의 방주 속 구원의 의미는?” >> 23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예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 “3.1운동 정신 이어받아 삶으로 살아내자”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제107주년 3.1절 기념예배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최병두 목사)가 최근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강욱 장로(이사장)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먼저 최병두 목사(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최 대표회장은 “3.1 만세 운동은 자유 자주 독립정신이며 민주정신으로서 세계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민족자유 운동”이라며 “우리는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 정신으로 8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삼일정신을 이어 받아 조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장쾌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일래 목사(이사)가 기도했고, 김명희 목사(이사)의 성경봉독과 CBS실버

장로중창단의 특별찬양이 세상 어디든지 외 1곡) 후 김주용 목사(연동교회 담임)가 광야에서 부르신 하나님(신 32: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자 한다면 먼저 시험이 있게 된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를 이기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광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며 “107년 전 우리나라가 마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독일을 외치며 하나님께 이를 간구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광야에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것”이라며 “3.1절에 우리의 선조들이



예배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심었던 자유와 해방이 꽃피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믿음을 세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가 마련돼 유명한 목사(공동회장)와 김희신 목사(공동회장)

이만동 목사(이사)가 각각 나라와 민족,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특별연주와 임영국 목사(사서기)의 광고, 김동원 목사(교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요한 목사(삼일회장)가 사회를 본 2



예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부는 정도출 목사(이사)의 기도, 해방동이 찬양단의 특별찬양(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은혜, 강홍복 목사(전 협성대 교수)의 특강, 애국가 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삼일절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강홍복 목사는 “기독교는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피해 역시 가장 많이 입었다. 우리는 단지 그 날을 기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 삶을 이어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김소리 목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김소리 목사(평촌교회)는 최근 발생한 임신 후기 낙태 사건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낙태 관련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은혜”라며 “어떠

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최근 국회 6분 앞에서 태아생명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하는 생명 보호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낙산에 가까운 시기의 낙태를 허용하려는 논의나 낙태약 도입, 미성년자의 단독 시술 허용과 같은 소식들을 접하며 목회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

의 선택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생명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정지되지 않은 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정비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태아뿐 아니라 여성 역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는 “여성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여성의 결정권이 또 다른 생명인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낙태 선택을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김소리 목사(왼쪽에서 4번째)가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태아생명보호국민연합

김 목사는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명 존중은 단순한 사회적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와 관련된 신앙의 문제”라며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교회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

을 통해 생명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며 “미혼모 지원과 위기 임신부 보호, 출산 이후 양육과 돌봄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생명 보호라는 사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생명이 새롭게 율트는 봄의 계절에 교회가 앞장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 N T E R T A I N M E N 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키오텍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프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현대약품, ‘먹는 낙태약’ 도입 중단하라”... 생명운동연합 등 기자회견

먹는 낙태약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현대약품의 관련 약물 도입 추진을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먹는 낙태약 도입 반대 국민 대책/생명운동연합은 최근 서울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약품은 생명을 죽이는 ‘살상 약물’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혼란을 틈타 현대약품이 미 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등 이른바 ‘먹는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 윤리를 외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물 낙태가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일부에서는 약물 낙태가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보험청구 자료 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물 낙태 여성의 10.9%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 출혈과 감염, 임신 조직 잔류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권리’라는 이름으로 가리는 것은 여성 건강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물 낙태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태여연

을 남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약물 낙태는 여성이 태아 배출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리적 충격을 남길 수 있다”며 “일부 연구에서는 낙태 경험 여성의 정신건강 관련 입원 위험과 자살 시도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낙태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낙태 경험 여성 중 상당수가 외부 압력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연구가 있다”며 “약물 낙태가 확대될 경우 재자가 여성에게 약물을 강제 투여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제약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약을 개발해야 할 제약사가 생명을 제거하는 약물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현대약품은 입법 공백을 이용한 약물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생명 존중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도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단체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을 낙태로 내모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미혼모 지원과 생명 보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이름 없는 태아들의 생명을 대변하는 생명의 의병으로서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현대약품은 지금이라도 낙태약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생명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형구 기자

#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북·중 국가기관 체계 속에서 반복”

### NKDB,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 주제 세미나 개최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 이하 NKDB)가 최근 서울 글로벌센터 9층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영사, 축사, 발제, 증언,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강제송환, 국제법과 인권 규범의 문제로 접근해야’

박종훈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이 단순한 외교 문제나 이주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이라는 중대한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호소를 넘어, 강제 송환이 어떤 구조와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북한의 국가 기관이 단계적으로 관여해 온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이주 관리나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제법과 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강제 송환에 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국제인권 규범은 처벌을 넘어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와 회복까지 포괄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 문제 역시 이러한 기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대화는 국제사회와 학계, 정책 결정자, 시민사회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북한 인권,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려선 안 돼”

이어 축사에 나선 이선화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 관심이 달라지는 사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 관심이 쏠렸다 꺼졌다 끼치는 사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온 시간들은 단순한 외교적 공조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확인해 온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와 정치적 환경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다뤄질 수 없는 가치이며, 특히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의 주체를 밝히려는 연구와 논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강제 송환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 국제법과 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앞으로의 정책과 국제적 대응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결국 북한 인권 문제는 특정 시기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며, 오늘의 논의가 더 넓은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져 인권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강제송환은 구조적 시스템… 북·중 기관 단계별로 관여’

이어진 발제에서 신동휘 조사분석원(NKDB 인권본부)이 ‘강제송환 단계별 가담 기관과 연계 체계’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신 분석원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은 오랫동안 ‘중단하라는 요구’와 국제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정작 누가,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과 절차로 송환을 결정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제 송환이 단순한 출입국 관리가 아니



행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라 북한에서의 구금·폭행·강제노동 등 중대한 인권침해와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관 체계와 연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그는 “이 연구는 강제 송환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각 단계에 관여하는 기관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기관 간 연결 고리를 구조화했다. 2000년대부터 2025년 사이 주요 송환 경로에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체포 순간부터 북한 송환 이후의 처우까지 흐름 전체를 살폈고, 강제 송환 경험자와 관련 재직자 등 100명을 대면 조사했다. 북중 양자 문건과 중국 공안 관련 문서공고 등 문헌 분석, 그리고 NKDB가 축적한 강제 송환 데이터 8245건을 교차 검증해 자료 접근의 한계와 기억의 간극을 보완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측 송환 구조는 ‘결정’과 ‘집행’이 분리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단계의 단속·체포·심문·구금·송환 여부 결정은 공안기관, 특히 변경 관리 기능을 맡는 변방 부문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실제 송환 집행과 호송·압송, 구금·시설 경비 등은 중군사 성격의 공안 변방 부대가 맡는다. 출경 송환 결정서와 집행 회신서 같은 행정 문서는 이단 구조를 뒷받침하며, 2018년 이후 국가이민관리국으로 관련 조직이 통합·개편되면서 결정과 집행이 단일 지휘 체계로 정비되고, 불법 이민 송환 전담 조직과 송환센터·송환소가 설치되는 등 제도적 효율이 강화된 흐름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이계된 이후에는 보위부가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신원 확인·사상 검증을 수행하고, 이어 집결소와 안전부대로 이어지는 처리 경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역·시기·개인의 탈북 경로가 달라도 유사하게 재현된다는 점에서, 예외적 이탈 사례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관 간 처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강제 송환은 중국과 북한의 여러 국가기관이 문서·조직·지휘 체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화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책임 논의도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각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한 기관 재직자와 개인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앞으로는 기관별 역할을 더 정밀하게 특정하고, 자료와 증언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증거 기반을 강화하며, 확인된 구조를 토대

로 실제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과제가 남는다”고 했다.

#### ◆‘강제송환,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 가능성’

이어 이지만 조사분석원(NKDB 인권본부)이 ‘강제 송환에 대한 국제법상 형사 책임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분석원은 “이번 연구는 중국의 강제 송환이 국제형사법상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로마규정에서 규정한 ‘인도에 반한 죄’ 가운데 추방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 구조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강제 송환 행위 자체가 국제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검토 과정에서는 추방 범죄의 주요 요건인 합법적 존재,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의 부재,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인식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합법적 존재’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체류 자격이나 난민 지위를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특정 공동체 안에서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사 결과 상당수 탈북민이 중국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생활 기반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국제형사법적 기준에서 합법적 존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중국의 강제 송환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집단적 추방의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조사된 사례들에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단위로 동시에 송환되는 집단 송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으며, 개별적인 난민 심사나 절차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도 드러났다. 특히 중국이 다른 국가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체류나 정착의 선택권을 제공하면서도 북한 국적자에게는 이러한 보호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점은 국제에 따른 차별적 처리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은 북한의 인도에 반한 범죄와 구조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국제형사법상 추방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중국과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법적 책임 추궁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강제 송환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축적해 제재나 법적 책임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경험을 책임 규명의 언어로 구조화하는 장기적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승연 기자

## 예장통합 부총회장 예비후보에 전세광·김한호·황순환 목사 등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 총회장 정훈 목사)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로 목사 3명과 장로 2명이 등록했다.

예장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한진)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비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는 임직순으로 전세광 목사(평북노회세상빛교회), 김한호 목사(충청노회서원경교회)가 이름을 올렸다.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는 이정환 장로(서울남노회초대교회)와 박기상 장로(영등포노회시온성교회)가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 소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과



(왼쪽부터) 목사 부총회장 예비후보 전세광·김한호·황순환 목사 ©교회 측 제공

정에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노회 소속 증명서, 공탁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공탁금은 목사 후보의 경우 1000만 원, 장로 후보는 5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후보로 최종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회 직전 열리는 춘계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제111회 총회 개최 60일 전인 7월 17일까지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규정도 함께 안내됐다. 예비 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기고나 연재, 인터뷰 등의 활동은 중단해야 하며, 후보가 시무하는 교회나 관련 시설을 지체단체 또는 기관 행사, 총회 총대가 참석하는 예배나 집회의 장소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행사 참석 시 후보 본인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회 임원선거 조례와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예비 후보 확정에 따라 오는 3월 6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비 후보 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형구 기자

## 김원천·윤학희 목사, 기성 부총회장 후보 추천받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안성우 목사, 이하 기성)가 제120년차 총회를 앞두고 2월 각 정지방회를 통해 차기 총회 임원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목사부총회장 후보로는 김원천 목사(대부전교회)와 윤학희 목사(천안교회)가 각각 추천을 받았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이기용 목사(신길교회)가 단독 추천됐다.

3년 임기의 총무 후보로는 김병기 목사(팔복교회), 송우진 목사(강변교회 협동),

이승갑 목사(유리교회) 3명이 추천됐다.

장로부총회장 후보에는 노수현 장로(광명중앙교회)와 문형식 장로(태평교회)가 추천을 받았으며, 부서기 후보에는 김이겸 목사(은누리교회)와 이정우 목사(새림교회)가 각각 추천됐다.

이 밖에 서기 후보에는 홍지명 목사(호원교회), 회계 후보에는 김승모 장로(대전선교회), 부회계 후보에는 이재동 장로(상도교회)가 각각 단독 추천됐다.

기성 제120년차 총회는 오는 5월 26일



(왼쪽부터) 이기용 목사, 김원천 목사, 윤학희 목사 ©교회 측 제공

부터 28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제19대 총회장에 이구일 목사 취임

### “말씀 위에 다시 서는 충남 교회... 다음세대·가정 회복 힘줄 것”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가 최근 충남 서산시 서산제일감리교회에서 '제19대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및 취임식'을 열고 이 교회 담임인 이구일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 지역 교계 지도자와 목회자, 성도들이 참석해 충남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다짐하며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축하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취임식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수석부총회장 박재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사무총장 박인규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이어 서산기독교총연합회 합창단이 특별찬양을 했고, 서기 최승호 목사가 요한복음 21장 15-17절을 봉독했다.

설교는 증경총회장 안호준 목사가 '택하시고 부르신 종'이라는 제목으로 전했

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 위에 사명을 맡기신다”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했다. 이어 “문명이 발전할수록 반기독교적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 시대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전 총회장 김정태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2부 취임식은 부총회장 이춘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 총회장 김정태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으며,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심하보 목사가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구일 목사는 취임사에서 “부족한 사랑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기총

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기도와 신뢰로 이 직분을 맡겨준 충남기총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분명한 기준을 요구받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기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사회적 흐름과 압박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혜롭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음세대 사역을 강조하며 “다음세대는 교회의 미래이자 오늘 맡겨진 사명”이라며 “말씀 중심의 신앙 유산이 다음세대에 전수되도록 충남 교회가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제19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구일 목사. ©충남기총

축사 순서에서는 김태홍 충남도지사(대독), 이완식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영성), 심하보 목사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충남기총이 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 사회 속 기독교 가치 확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행사는 사무총장 명영태 목사의 광고

와 정영진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취임식 이후 대광기총은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교계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차별 금지법과 교회 해산법 등 교회의 신앙과 종교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계 인문을 통한 성명서 발표와 국회 소동관 기자회견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광역단위 조직 확대를 위해 현역 임원뿐 아니라 증경 임원 가운데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을 영입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으며,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김정태 목사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쳐” 故 오성훈 목사 천국환송예배

### 6일 사랑의교회 은혜채플서 거행돼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통일사역과 북한선교에 헌신해 온 故 오성훈 목사의 천국환송 예배가 최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은혜채

플에서 거행됐다. 이병철 목사(한국교회 통일선교장 집행위원장)/주향교회 담임이 예배를 집례했으며 김동구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미가엘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집례자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오정현 목사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생애(디모데후서 4장 6-8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故 오성훈 목사님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의 미래였다고 생각한다. 그를 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여정과 같고, 참된 보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확신 속에서 신앙의 소망이 이어진다. 오 목사님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서 떠난 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소망이 남은 이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본문처럼 신앙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여정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한 사람의 삶이 보여준 헌신과 순종은 남은 이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믿음의 유산이 된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린 전제와 같은 삶처럼, 맡겨진 사명을 향해 충실히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목사님을 통해 이어져 온 복음적 사명과 통일을 향한 기도의 마음 역시 남은 이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품었던 믿음과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붙들며, 남은 이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고인의 추모영상을 시청했으며 유대영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부총무/삼성제일교회 담임)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다.

이어 이상숙 권사(주빌리 고문/기독교 통일포럼 고문)가 추모사를 낭독했으며 신상범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새빛교회 원로)가 추모사를 전했다.

신 목사는 “오랜 시간 함께 사역하며 맺은 인연 속에서 오성훈 목사님은 언제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긴 목회자였다. 어떤 부탁에도 기꺼이 응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고, 목회 현장과 성도들 속에서 지혜롭고 따뜻한 사역을 이어갔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삶을 관통한 중심에는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 신학생 시절부터 품었던 그 마음은 기도운동과 선교 사역으로 이어졌고, 교단과 교회를 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통일 기도 운동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큰 슬픔으로 남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속에서 그의 사명과 헌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남겨진 가족과 동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화를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만날 소망을 품은 채 그 삶의 의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故 오성훈 목사에게 공로패,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고인의 첫째 아들인 오한민 형제가 대리 수장했다. 이어 오한민 형제가 유족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저희 아버지는 검소하시고 늘 겸손하시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던 분이셨고 그리고 강한 분이셨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였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훌륭한 삶을 사셨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저는 아버지가 이루려고 하셨던 복음 통일이 라는 값진 사명을 받들고 살아가도록 하겠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 헌신, 희생



故 오성훈 목사 영정 사진. ©최승연 기자



故 오성훈 목사를 기리는 감사패가 고인의 첫째 아들인 오한민 형제(오른쪽)에게 전달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잘 버티면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故 오성훈 목사는 1969년 7월 8일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국립장원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Th.M) 과정 중이며 2001년 4월,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PN4N)'를 통해 복음적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목사안수를 받고 조은교회 담임을 거쳐 예심성결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포앤박스 대표이사, 월간 '동일코리아' 발행편집인, 북한지역목회자협의회 3대 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통일선교훈련원 초대 사무총장,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초빙교수,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 정책위원, 통일소망선교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교회 통일선교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지난 2017년 7월 22일부터 소천 직전까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3대 사무총장으로 섬기며 국내외 교회를 잇는 연합기도 운동을 이끌었다. 최승연 기자

**LX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엡티브 :**  
논실리크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LX Z:in**

## 서울에 '유엔 참전용사 추모공원' 건립 추진... 한미 단체 공동 협력

서울에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대규모 추모공원 건립이 추진된다. 이영훈 목사(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 이사장)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아미 네이비 컨트리 클럽(Army Navy Country Club)에서 열린 공동회의에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와 '한국전 유엔 참전용사 기념재단'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서울에 한국전쟁 유엔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제

확인했다. 한국 측은 서울에 조성될 기념공원의 부지 선정 문제와 정부와의 협의의 진행 상황, 국민 모금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 재단은 한국에 건립될 기념공원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영훈 목사는 “1950년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과 15개 참전국 청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한미 양국과 참전국 간 우호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기념공원의 성공적 건립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협정서에는 이영훈 이사장과 존 킬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김진영 기자

#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이돈하 목사, 15년 목회 마무리... 총신대 교수로

오레곤 최대 한인교회인 벨엘장로교회 담임 이돈하 목사가 이 교회에서 15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한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차세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자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이돈하 목사는 이임 배경에 대해 “모교인 총신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 교수가 필요한데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른심이 있었다.

학생들이 지난 10년 동안 관련 과목 교수가 없어서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벨엘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신학생들을 양성하면서 저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된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벨엘장로교회 성도들은 지난 3월 1일

고별예배에서 이 목사를 총신대학원 교수 파송선교사로 세우며 새로운 사명을 축복했다.

이날 이돈하 목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은 선택하라’(신 1:29-33, 시편 37: 4-6)라는 제목으로 고별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흥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길인데, 불안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모두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며 “이 한 가지를 굳건히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의미를 설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내린 선택이라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



이돈하 목사와 이미림 사모 ©김민선 기자

도하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한국 총신대학원으로 가는 길이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저의 기쁨보다 ‘하나

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순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교회는 이돈하 목사에게 15년간의 사역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고, 임직자들은 이돈하 목사와 이미림 사모의 손을 잡고 중보기도를 드렸다. 성도들은 그동안 써 모은 사람의 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벨엘장로교회 당회는 이돈하 목사를 총신대학원 교수 파송선교사로 임명하고 예배 중 파송식을 가졌다. 이날 사랑의 애잔은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돈하 목사와 이미림 사모가 준비했다. 이돈하 목사는 오는 3월 12일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돈하 목사는 2011년 8월 오레

곤 벨엘장로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지난 15년 동안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오레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 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목회 기간 교회의 성장과 다음세대 사역에 힘써 왔으며, 교회는 2021년 비전 동안 써 모은 사람의 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벨엘장로교회 당회는 이돈하 목사를 총신대학원 교수 파송선교사로 임명하고 예배 중 파송식을 가졌다. 이날 사랑의 애잔은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돈하 목사와 이미림 사모가 준비했다. 이돈하 목사는 오는 3월 12일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돈하 목사는 2011년 8월 오레

## 한기총 남가주지회, 기자회견 통해 출범 선언

### 신학-선교-사회공익-청소년 리더십 사역 추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가 출범과 관련해 4일 LA 한인타운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최창수 목사가 개회기도를 드리며 시작했다. 이어 박종대 목사(남가주 교협 중경회장)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마태복음 5:13)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

했다.

박종대 목사는 “남가주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사역이 기대된다”며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여 교계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샘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신을 발표했으며, 김영구 목사가 그동안

의 경과보고를 전했다. 또한 박세현 목사가 향후 주요 사역을 발표할 뒤 한기총 목사의 축도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남가주지회의 주요 사역으로 박세현 목사는 △신학 부문 △선교 사역 △사회 공익사업 참여 △청소년 리더십 세우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구 목사는 “한국 교계 인사 중 북한과 한국에 구금되어 있는 인사들의 안락을 위해 성령서 등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현재 한기총의 활동을 아서 해간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샘신 목사(남가주교협 중경회장)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제26지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사실을 전하며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가주 상원 제26지구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다운타운, 리틀도쿄, 차이나타운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김민선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가 출범과 관련해 4일 LA 한인타운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 후 단체사진. ©주최 측 제공

## 미주 기독교일보·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 세미나’ 개최

### 3월 23일 월드미션대학교, 지역교회 활성화 위한 소그룹 목회 지원 프로젝트 진행

미주 기독교일보와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소그룹 사역 세미나’가 오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드미션대학교(500 Shatto Pl, Los Angeles)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참예된 지역 교회를 다시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소그룹 사역의 실제적

인 목회 전략을 나누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소그룹 목회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15개 교회를 선정해 각 교회에 3천 달러를 지원하는 소그룹 목회 지원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이날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고 교회의 소그룹사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과 구체적인 변화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15교회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교회들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소그룹 사역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목회 현장의 소그룹 노하우 공유와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 지원까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 강사로는 유경재 목사(나성북 부교회 담임)와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

교회 담임)가 나선다. 유경재 목사는 ‘소그룹 중심 목회사역의 실제’를 주제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 목회의 경험을 나누며, 이수호 목사는 ‘말씀 중심 소그룹 구조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교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그룹 운영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며 “소그룹 사역을 통해 참예된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담임목사와 목회자, 교회 리더 및 소그룹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213-434-117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주 기독교일보와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민선 기자

## “안전이 아니라 사명으로” 폴 킴 선교사, ‘Kingdom Generation’ 비전 제시

폴 킴 선교사(텔로 바이오메 Business as Mission 디렉터)가 ‘Kingdom Generation - 부모의 눈물, 자녀의 사명’을 주제로 다음 세대를 향한 도전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부모 세대의 기도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녀를 사명자로 세우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킴 선교사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부모의 입술에는 ‘지켜 달라’는 기도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아이를 사명자로 세우겠느냐’고 물으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음 세대를 ‘Kingdom Entrepreneurs’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는 자녀가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돈을 다스리는 자로 서길 원하신다. 재정을 사명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섬기고 있는 텔로 바이오메에 대해서도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몸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션 플랫폴’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이윤을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향하는 ‘Business as Mission’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다음 세대를 ‘Kingdom Influencers’로 규정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휩쓸릴까 두려워하지만,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방향을 바꾸는 존재이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되지만, 부모의 믿음도 그대로 전달된다. 부모가 믿음과 소망, 사랑 위에 설 때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녀는 방향이 아닌 정렬을 경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세대를

‘Kingdom Overcomers’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했다.

부모와 자녀를 향한 선인폴 킴 선교사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부모를 향해 그는 “자녀를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사명자로 파송하는 부모가 되라”고 도전했으며,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확장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는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 계승과 정체성 회복, 몸과 마음의 재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적 기업 모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세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c AEKYUNG**

# 미주 4개 한인 신학교, 릴리재단(LSCG) 프로젝트 감사예배

총 지원금은 미화 1천만 달러,  
700만 달러는 향후 5년간 프로그램 실행 비용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월드미션대 학교(WM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 ITS신학대학원(ITS)신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들은 지난 3월 4일, CPU에서 릴리 공동 프로젝트(LSCG)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릴리 재단은 지난해 미국 내 신학교들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 수혜 기관을 모집했으며, 이에 네 개 신학교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최종 선정되었다.

이날 예배는 CPU 멀티룸에서 찬양팀의 인도와 CPU 김부민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WMU 임성진 총장 개회 기도 후 GMU 이병구 학장의 예배소서 4장 1-6절을 성경 봉독, GMU 이사장이자,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가 '연합의 영성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LSCG프로젝트 어드바이저)는 기독교 영성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지점은 연합이라고 강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유지하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은 자기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인 신학교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그랜트를 받아 협력하게 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 교계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PU 이상병 총장은 그랜트 경과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네 학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온 과정을 소개하며, 협력 관계가 시작 당시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했음을 감사했다. ITS 이승현 총장은 비전 선포를 통해 네 학교의 연합을 통해 차세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양성에 새로운 모



한기홍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델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각 학교의 주요 역할도 소개했다. GMU는 CBTE(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라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목회 현장에 맞춘 결과 중심의 유연한 커리큘럼을 설계하며, 프로젝트 주관 학교로서 릴리 재단과의 소통, 재정관리 및 보고, 행정 조율을 담당을 맡았으며 CPU는 다인종-다언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WMU와 함께 컨소시엄 예산을 관리를 담당했다.

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중직 프로그램(MBA, 채플린, 의료보조원 등)을 운영하며, 컨소시엄 전체 활동을 릴리 재단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WMU는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춘 영적 성장 도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개 학교 컨소시엄 기금을 관리하며, ITS는 다인종-다언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WMU와 함께 컨소시엄 예산을 관리를 담당했다.



미주 4개 한인 신학교, 릴리재단(Large-Scale Collaborative Grants(LSCG) 프로젝트 감사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네 학교가 릴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총 지원금은 미화 1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700만 달러는 향후 5년간 프로그램 실행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네 학교가 내년 말까지 100만 달러를 모금할 경우 1대 3 매칭 방식으로 3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릴리 재단(Lilly Endowment Inc.)은 인디애나폴

리스에 본부를 둔 민간 자선 재단으로, 1937년 J.K. Lilly Sr.와 그의 두 아들 Eli Lilly와 J.K. Lilly Jr.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 발전, 교육, 종교 분야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재단을 통해 지원 받은 것은 한인 신학교 성장과 미주 한인교회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다. 김민선 기자

## 시애틀 형제교회

### “Workshop Global Summit 2026” 개최

일과 예배의 조화... “당신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가 '일과 예배의 통합'을 주제로 한 글로벌 컨퍼런스 Workshop Global Summit 2026을 오는 3월 27일부터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Work(일)'와 'Worship(예배)'를 결합한 Workshop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중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Workshop Global Summit 2026은 신앙과 일의 통합, 그리고 일터 사역(workplace ministry)을 주제로 신앙과 직업, 비즈니스, 재정 관리, 선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참여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눌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교회와 주일 중심의 신앙을

넘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강의와 메시지로 진행된다. 강의는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등록자는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3월 24일까지 강의 웹사이트 접속 링크를 안내받게 되며, 이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가 강사로 “왜 일터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직장과 일터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 Regent Bank의 CEO이자 신앙과 리더십 사역을 펼치고 있는 Sean Kouplen은 “CEO를 위한 일터 사역”을 주제로 기업 경영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 나누며, Brian Bauer는 재정 관리와 신앙적 정치가 정산에 대해 강의한다.

김진숙 강사는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예배로”라는 주제를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실제적인

적용을 소개하며, Patrick Lai는 일과 믿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직장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도 Darren Shearer는 “그리스도 중심의 비즈니스”를 주제로 신앙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기업 운영과 리더십을 다루며, 이대경 강사는 실제 삶 속에서 일이 예배가 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선교 현장에서의 일터 사역을 주제로 Bill Job이 강의하며, John Hwang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터 사역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앙과 직업 소명의 통합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 Albert Erisman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직업과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주최 측은 컨퍼런스 등록자들은 3월 24일 이후, 언제든지 강의 사이트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 컨퍼런스 관련 문의는 425-488-1004 또는 info@hyungjae.org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CRC 한인목회자협의회, 2026년 KMA 총회·컨퍼런스 시애틀서 개최

“Unity in Diversity”... 한어·영어권 사역자 부부 한자리 모인다

미주 기독교 개혁교회단(Christian Reformed Church, CRC) 산하 한인목회자협의회(Korean Ministers Association, 이하 KMA)가 2026년 총회 및 컨퍼런스를 오는 4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개최한다.

시애틀 인근 터킬라(Tukwila)에 위치한 컴포트 스위트 호텔(7200 Fun Center Way, Tukwila, WA 98188)에서 진행되는 이번 모임은 “Unity in Diversity”를 주제로, CRC 산하 한인 교회 목회자와 영어권-한국어권 사역자 및 배우자들이 참석한다.

모임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Eph. 4:3)



이다. KMA 측은 “CRC는 ‘가족’ 개념을 소중히 여기며, 산하 한인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총회와 나눔, 배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만나고 다양하게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날인 20일에는 등록과 저녁 식사 후,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드리는 교회 예배와 총회가 진행된다.

21일에는 ‘목회 현장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주제로 한 오전 세션과 ‘교단 내 한인 교회들의 현황과 미래’를 다루는 오후 세션이 마련되며, 교단 관계자들과의 질의 및 소통 시간도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시애틀 지역 투어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Wrap Up과 함께 폐회 예배 및 성찬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등록은 온라인 (2026 KMA 총회-컨

퍼런스 등록 링크 <https://forms.gle/bGxksoXwRqRsUk3V6> 클릭)을 통해 가능하다. 1차 등록 마감은 2026년 1월 31일로, 등록비는 부부 700달러, 개인 400달러다.

2차 등록은 2월 15일까지이며, 등록비는 부부 800달러, 개인 450달러다. 여행 옵션 등 추가 정보 제출 마감은 2월 28일까지다.

등록비는 체크로 납부하며, 수령 교회는 Han-Bit Korean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Detroit(1849 South Livernois Road, Rochester Hills, MI 48307)이다. 수표는 “Han-Bit Korean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Detroit” 앞으로 발행하고, 메모란에 ‘KMA’라고 기재하면 된다.

한편 KMA는 이번 모임을 통해 CRC 산하 한인 목회자 및 사역자들의 네트워킹과 지역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집회 및 세미나 운영을 위해 각 교회의 후원도 요청했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후은씨앗**

-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후은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후은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 “영역 주권’, 하나님 앞에서 교회·기업·성도의 회복과 균형 이끌어”

잡뉴스솔로몬서치 대표·솔로몬일터교회 담임목사 김동연 목사 인터뷰 (上)

## 17년 일터 교회의 결실 ‘일터교회 영역 주권’ 출간 “주일 예배 넘어 ‘주중 5일 일터 신앙’ 회복 기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기업의 경영 철학을 바꾸며, 성도의 직업관을 바꾸는 ‘구조적 신학 패러다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사상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교회는 사회 주변부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해석하는 공동체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이자 신학교 교수, 저술가로 활동 중인 김동연 목사(잡뉴스솔로몬서치 대표, 솔로몬일터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17년간 기업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일터 교회’ 확산에 앞장서 온 일터 사역의 선구자이다. 김 목사가 주중 5일에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터 교회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최근 신간 ‘일터교회 영역 주권’을 펴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기업, 일반 성도들의 삶을 회복하는 새로운 돌파구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 사상과 ‘일터 교회의 중요성,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김 목사와 최근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일터 교회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전통적 교회 중심의 목회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일터 교회 영역 주권’은 교회가 예배당 중심을 넘어 성도의 일터, 곧 직장·사업장·전문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는 또 하나의 교회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전통적 교회 중심 목회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은 사회 구조의 변화, 성도의 삶의 무게 중심 이동, 선교 환경의 변화에서 나옵니다. 그 대안으로 ‘일터 교회를 제시한 이유는 성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이루고, 일상의 선교(미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적 교회 중심 목회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①먼저 현대인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서 ‘일터’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전통적 목회 구조는 주일 예배,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은 교회

안의 활동, 직업은 생계 수단처럼 분리되는 이원론적 신앙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②두 번째, 사회의 탈종교화와 교회 영향력 감소 현상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더 이상 사회 중심 기관이 아닙니다. 청년층의 교회 이탈, 직장 문화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목회는 현실 접점이 약화되었습니다.

③세 번째, 성도의 소명(Calling)에 대한 왜곡 현상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목회자-선교사=거룩한 직업, 일반 직업인=세속 직업’이라는 구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 특히 요한 칼뱅의 소명론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 교회 중심 목회는 이 소명 신학을 충분히 실천 구조로 확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일터 교회’가 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터는 가장 넓은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 1-2회 모이지만, 일터는 매일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기업, 병원, 학교, 공공기관, 자영업 현장 등 모든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관점입니다.

②또, 신앙과 직업을 통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터 교회는 단순히 직장 선교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이 개념은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것으로, 사회는 교회-국가-가장경제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주권을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경제 영역도, 문화 영역도, 기업 경영도 모두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③그리고 교회 구조의 확장과 성도의 정체성 혼란 때문입니다. ‘일터 교회’는 교회를 건물이나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이해합니다. 즉,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회사에서는 그냥 직원입니다’고 말합니다. 이 말속에는 신앙과 직업이 분리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직업은 ‘생계의 수단’, 교회 봉사는 ‘영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서, 성경적 관점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직업을 통합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과도 연결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존재이며, 일터는 그 파송의 1차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Q. ‘일터 교회를 선교 대안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클레시아, ekklesia)’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 시장, 일터, 길거리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유지하며 사역했습니다. 삶의 현장 속 선교(Missional Church)인 ‘일터 교회’는 단순한 직장 신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터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인정하고, 직업을 소명(Vocation)으로 재해석하며, 현장에서 공동체적 신앙을 실천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도들은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선교적 공간은 바로 일터입니다. 기존 교회 중심 모델로 살펴보면 ‘예배당 중심, 목회자 중심, 주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지만, 일터 교회 모델은 ‘삶의 현장 중심, 성도 사명 중심, 일상 중심, 소명 중심’입니다. ‘일터 교회는 교회를 대체하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장시간 노동 문화, 높은 직장 스트레스, 신앙과 직장 문화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터 교회’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목회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신앙 소그룹, 기독 경영 철학 적용, 직업윤리의 신학적 재정립, 직장 문제에



김동연 목사는 “‘일터 교회 영역 주권’은 교회를 건물에서 삶의 현장으로 확장하려는 신학적, 목회적 전환”이라며 “즉,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질 때 ‘비로소 교회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목사 제공

대한 목회적 코칭 등이 구체적 실천 영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교회 중심 목회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은 교회의 약화가 아니라, 교회의 위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일터 교회 영역 주권’은 교회를 건물에서 삶의 현장으로 확장하려는 신학적, 목회적 전환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질 때 ‘비로소 교회다’라는 고백의 구조입니다.

**Q.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을 일터 신학에 적용하셨습니다. 카이퍼의 사상이 오늘 한국교회와 기업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사회는 여러 고유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책임과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일터 신학에 적용하면, 기업과 직장은 교회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고유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관점은 오늘 한국교회와 기업 현장 모두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에 적용해 보면, ①첫 번째 교회 권위의 ‘축소가 아니라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카이퍼는 “교회는 교회 영역에서, 국가는 국가 영역에서, 기업은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업을 통제하거나 종속화하려는 태도 대신,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성도를 파송하며, 양심과 윤리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되, 운영은 일터가 책임진다는 구조입니다.

②두 번째, 성공 검증 중심 문화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종종 ‘사업이 잘 되었다=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성공 신학적 해석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역 주권’은 기업의 목적이 단순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Common Good) 창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공 사례보다 ‘정직한 의사결정, ‘공정한 고용’, ‘사회적 책임’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③세 번째,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기존 구조가 ‘교회 활동 중심 훈련, 주일 예배 중심, 목회자 사역 강조’라면, ‘영역 주권’ 적용 구조로는 ‘직업 소명 중심 훈련, 주중 삶 중심, 성도 사명 강조’로 변화를 요구합니다. 즉,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 현장에서의 적용을 살펴보면, ①먼저, 기업은 하나님 앞에서 경제 영역의 책임 기관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영역 주권’의 핵심은 영역의 고유성입니다. 기업은 선교 단체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며, 종교 기관도 아닙니다. 동시에, 단순히 이익을 내는 기계도 아닙니다.

②또한, 경영 의사결정의 신학화입니다. 카이퍼는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선언은 오늘 기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 정책에서 인간을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착취적 구조 지양, 투명한 재무 투자, 사회적 해악 산업 배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성과만이 아니라 품성과 공동체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③마지막으로, 한국적 현실 속에서 구

체적으로 ‘영역 주권’을 적용하면 노동 존엄성을 회복하여, 단순 ‘성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책임적 주체로 직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갑질 문화를 신학적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는 위계적 구조, 장시간 노동, 성과 압박 중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 권위입니다. 따라서 상사의 권위 역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영역 주권’은 ESG를 넘어선 신앙적 책임을 갖게 합니다. ESG는 제도적 요구지만, ‘영역 주권’은 신앙적 소명입니다.

한국교회와 기업의 접점 모델도 소개하면, ①직업 소명 아카데미를 통해 산업 직군별 신학 세미나 및 CEO 전문직 신학 포럼과 범조의료교육 영역별 윤리 연구가 필요합니다.

②그리고 일터 사목 목회자(Workplace Pastor)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기업을 방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성도들의 직업적 고민, 삶의 고민까지도 해결해 나가는 전문 일터 사목 상담목회자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중 5일 자기가 속한 일터에서 수많은 갈등 요인이 있을 때, 경영자에게는 그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지만, 일터 사목에게는 고백하며 비공개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③아울러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의 사상은 교회 내부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를 신앙으로 성찰하는 ‘공공신학 전통’과 연결됩니다. 이는 현대 개혁주의 신학, 특히 헤르만 바빙크 전통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일터 교회 영역 주권’의 적용이 중요할까요. 한국교회는 ‘내부 성장 체제’를 경험하고 있고, 기업은 ‘윤리적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역 주권’은 교회가 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이 균형이 회복될 때,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은 윤리적 깊이를 얻으며 ‘도덕적 헤이(모럴해저드)’가 없어지고, 성도는 ‘분열된 삶에서 통합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역 주권’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해, 기업의 경영 철학, 성도의 직업관을 바꾸는 구조적 신학 패러다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사상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교회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해석하는 공동체로 재정립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속)

이지희 기자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대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사 중 1위 (11개소)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KOMIPO 한국중부발전

# 美연방대법원 “부모 모르게 성 정체성 정보 은폐 위헌 소지”

## 캘리포니아 학교 정책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퍼 큐리엄(per curiam) 의견에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해당 정책에 반대해 온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6대 3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에 따라, 자녀의 동아가 없으면 학교가 성 정체성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주(州) 정책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이 효력을 갖게 됐다. 앞서 항소법원은 이 금지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적 면제를 요구한 학부모들이 “자유행사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따른 청구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정책은 부모가 자녀의 종교적 발달을 지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들이 제기한 유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은 해당 정책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이념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자유행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 정부는 학생의 안전과 생활 보호라는 중대한 이익을 주장하지만, 이 정책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1차적 보호자인 부모를 배제한다”

고 밝혔다. 이어 “학대를 우려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에게 성 정체성 정보를 제한하는 등 종교적 면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1차적 권한을 가진다”며 적법절차(due process) 측면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리에는 자녀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커티지 브라운 재선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이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항소법원이 동일한 쟁점을 심리 중임에도 대법원이 이를 기다리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wikipedia.org

개입했다”며 “왜 항소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캘리포니아 정책이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중대한 정보를 부모로부터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한계를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리한 법률단체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이번 판결을 “한 세대 만에 가장 중요한 부모 권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특별고문 폴 M. 조나는 “이는 미국에서 부모 권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주 정부가 부모 모르게 자녀의 성 전환을 비밀리에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두 명의 교사는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학생이 원할 경우 선호 성별 정보를 부모에게 숨기도록 한 학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학교에서 성 전환을 했지만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부모들도 소송에 합류했다.

2024년 캘리포니아주는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12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주 교육부 정책에 대해 영구 금지명령을 내리며, 주 공무원들이 “미성년 자녀의 학교 내 성 표현과 관련해 부모를 오도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톱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해당 금지명령의 집행 정지를 요청하며, 정책이 “취약한 트랜스젠더 및 성별 비순응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오랜 주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후 집행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학부모와 교사 측은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제기했다. 이명경 기자

## ‘거리의 목사들’ 창립자 “교회, 결혼 회복 위해 더 적극 나서야”

영국 기독교 단체 ‘거리의 목사들(Street Pastors)’ 창립자인 레브 레스 아이작 목사와 그의 아내 루이즈 아이작이 결혼 45주년을 맞아 교회의 적극적인 결혼 사역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킵 더 페이스 매거진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 참석해 결혼 생활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나눴다.

레스 아이작 목사는 “우리의 결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결혼”이라면서도, 결혼 초기 3년은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지혜와 통찰을 다른 부부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이자 사역”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특히 교회가 결혼을 강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스 아이작 목사는 “아내가 몇 년 전 이런 말을 했다. ‘결혼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결혼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며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의 문이 닫힌 뒤의 기독교 결혼 안에서도 심각한 도움과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교회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즈 아이작은 결혼의 ‘영적 맥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공격하려는 영적 도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Unsplash/Samantha Gades

그는 과거 한 비기독교인 친구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그 친구는 동거는 괜찮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동거할 때는 괜찮다가 결혼을 하면 갈등과 마찰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었다”며 “그 여성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역할을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루이즈는 교회의 첫 번째 대응은 기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을 위한 기도가 교회의 정서적인 의제가 되고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가 관계 지원과 결혼 사역에 있어 보다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대영제국훈장(OBE)을 수훈한 레스 아이작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

이 관계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소통, 성적 문제, 재정 문제 등은 모두 결혼 여정의 일부”라며 “많은 경우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침묵의 문화’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결혼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지도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때, 성도들도 더 쉽게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레스 아이작 목사는 “주일 아침 설교 시리즈로 관계와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어야 한다”며 “성경적 관점에서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루이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와 도전이 많지만,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정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레스 아이작 목사는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성과 재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나 리더십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는 숙련되고 은사 있으며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틀을 세워 격려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경 기자

## 가프콘 “G26은 카이로스의 순간” 세계 성공회 재편 분수령 되나

보수 성향 성공회 연합체인 가프콘(GAFCON·Global Fellowship of Confessing Anglicans) 사무총장이 내달 열리는 ‘G26’ 모임을 두고 보수 성공회 진영에 있어 “카이로스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가프콘은 전 세계 성공회 신자의 다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위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턴내셔널(CDI)에 따르면, 가프콘 사무총장인 폴 도니슨 주교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리는 G26 집회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모임에는 성경적 정통 신앙을 표방하는 전 세계 성공회 지도자 약 400명(대주교, 주교, 성직자 및 평신도)이 참석해 예배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니슨 주교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함께 모여,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가 무엇인지 기도로 분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G26이 단순한 연설 모임이 아니라 “공의회적이며, 신앙고백적이고, 협력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 깊은 일치를 추구하는 세계적 성공회 가족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도니슨은 또 지난해 10월 발표된 ‘순교자의 날 성명(Martyrs’ Day Statement)’을 “예언적 순간”으로 평가했다. 해당 성



가프콘 사무총장 폴 도니슨 주교. ©가프콘

명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고 선언하며, 영국 성공회와의 결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200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세계 모임과 14개 조항의 ‘예루살렘 선언(Jerusalem Declaration)’ 채택 이후 이어진 행보다. 예루살렘 선언은 성경적 정통 교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프콘은 지난해 10월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이후, 글로벌 성공회 지도체계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시 ‘순교자의 날 성명’을 통해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위를 거부하며, 기존 캔터베리 중심 구조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 단체는 주류 성공회가 성경적 가르침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로는 동성 관계에 있는

체리 벤 주교가 웨일스 대주교로 임명된 일과, 동성 축복에 대한 지지 발언 등이 거론됐다.

도니슨 주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복음주의 성공회 신자들에게 아부자 모임 참석을 촉구하며 “가프콘은 식민주의나 특정 인물, 혹은 실패한 제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진 글로벌 협력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G26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 달라”며 성공회 외 기독교인들에게도 중보를 요청했다. 이어 “2008년 예루살렘에서 밝혀진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며 “이제 아부자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참여하며 동행하자”고 말했다. 이명경 기자

의성군

#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 의성

## 에서 만들어갑니다.

# 파키스탄 기독교 노동자 고문 사망 의혹... 농장주 '자살 위장' 주장 제기

### 유가족 "시신에서 고문 흔적 발견" 기독교인 항의 시위 속 경찰 수사 착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 사르고다 지역에서 20대 기독교 노동자가 고문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과 인권단체는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고문에 의한 살해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1세 기독교 농장 노동자 마르쿠스 마시(Marcus Masih)는 지난 4일 자신이 일하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고용주가 고문 끝에 그를 숨지게 한 뒤 사건을 목매 자살로 꾸미려 했다고 주장했다.

마르쿠스의 형 딜샤드 마시(Dilshad Masih)는 동생이 펀자브주 사르고다 지역 차크 36 자노비(Chak No. 36 Janoobi)에 있는 소 농장에서 약 5년 동안 일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동생의 고용주 중 한 명인

바사라트 카랄(Basharat Kharal)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전화를 걸어 동생이 측사 천장에 목을 매 자살했다고 말했다.

◆가족 "시신에서 심한 상처 확인"...  
고문 의혹 제기

전화를 받은 딜샤드 마시는 친척들과 함께 즉시 농장이 있는 마을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마르쿠스의 시신이 측사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장 측은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전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병원에서 부검 절차가 진행된 뒤 시신이 가족에게 반환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딜샤드 마시는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멍과 화상 자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이 깊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있던 상황에서 고용주 측과 연관된 변호사들이 빈 종이에 지문을 찍도

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해당 문서가 부검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시신을 확인하면서 고문 흔적을 발견하게 됐고 사건의 정황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기독교인 항의 시위... 경찰 수사 착수

CDI는 사건 이후 지역 기독교인 수십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은 마르쿠스의 시신을 도로에 놓고 주요 고속도로를 막으며 경찰에 형사 사건 등록을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1차 정보 보고서(FIR)를 접수했다고 피해자 가족은 전했다. 딜샤드 마시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체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그는 "가족이 가난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

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철저한 조사 필요"... 종교 소수자 취약성 지적

사르고다 지역 인권 활동가 아셰르 아델(Asher Adeel)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신에서 확인된 상처가 심각한 고문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들이 살해 후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에게 빈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델은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당국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된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인권 문제... 반복되는 폭력 사건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파키스탄 농촌 지역에서 종교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낮은 임금의 비공식 노동 시장에서 일하며 영향력 있는 지주 아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기독교 노동자 카시프 마시(Kashif Masih)가 도난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과 고문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는 전직 경찰관을 포함한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5년 3월에는 기독교 공장 노동자 와카스 마시(Waqas Masih)가 신성모독 의혹을 제기한 동료에 의해 목이 베이는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슬람 교재를 더러운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2월에는 기독교 노동자 와시프 조지(Wasif George)가 나무를 훔쳤다는 의혹을 받으며 납치된 뒤 모욕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끌려다니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2024년 6월에는 가톨릭 노동자 와카스 살라맛(Waqas Salamati)이 고

용주에게 전기 고문을 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보고됐다.

◆국제 보고서 "파키스탄, 기독교 박해 심각 국가 중 하나"

국제 감시단체들은 파키스탄을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기독교 인권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에서도 파키스탄은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국가 가운데 8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체계적 차별과 폭력, 강제 개종, 강제 노동, 성별 기반 폭력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사회적 압력과 법 집행의 한계로 인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가족은 현재 법적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딜샤드 마시는 "동생이 정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 미국 해외원조 축소 속 아프리카 기독교 의료기관 재정 전략 재편

### 케냐·잠비아 교회 보건 네트워크, 지역 중심 보건 모델과 재정 자립 확대 모색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의 신앙 기반 의료기관들이 미국의 해외 원조 정책 변화에 대응해 재정 구조와 운영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와 잠비아의 기독교 의료 네트워크 지도자들은 최근 글로벌 보건 원조 흐름이 바뀌면서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재정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 기독교보건협회(CHAK)와 잠비아 교회보건협회(CHAZ) 관계자들은 최근 국제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해외 원조 정책 변화가 아프리카 보건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가 오랫동안 예측해 왔던 변화, 즉 해외 원조 의존 구조에서 지역 중심의 재정 모델로 전환하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원조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이 조치에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예산 삭감이 포함됐다. USAID는 오랫동안 전 세계 개발과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해 온 미국 정부의 핵심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책 변화 이후 많은 국제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동결됐으며 수천 명의 USAID 직원이 해고됐다. 비판자들은 전 세계 해외 원조 프로젝트 가운데 약 80%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원조 축소, 아프리카 보건 시스템에 큰 영향

CDI는 2025년 7월 미국 의회가 약 79억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 예산을 삭감하는 '2025년 예산 환수법(Rescissions Act)'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예산 삭감에는 보건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개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USAID는 그동안 아프리카 보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HIV/AIDS 치료 프로그램, 말라리아 예방 사업, 산모와 아동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건 사업이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해 왔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USAID 축소는 질병 통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되돌릴 위험이 있으며 수백만 명의 생명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HIV/AIDS 프로그램 지원이 감소할 경우 신규 감염 증가와 사망률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케냐 기독교 의료 네트워크 "원조 의존 구조 재검토 필요"

케냐 기독교보건협회(CHAK)의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웨케사 바라사(Chris Wekesa Barasa) 박사는 이러한 변화가 오래전부터 예측된 흐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HIV 재정 지원과 글로벌 원조의 전환 필요성이 논의돼 왔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원조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보건 기관들이 다시 전략을 점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라사 박사는 이번 변화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의료기관들이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데이터 활용 방식 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케냐와 잠비아 보건 시스템 차이... 재정 구조 영향

CDI는 이번 변화가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보건 시스템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의 경우 신앙 기반 의료기관이 상당한 규모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K에 따르면 협회 소속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 시설의 약 11%를 차지하지만 약 40%의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잠비아는 독립 이후 정부와 교회 병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잠비아 교회보건협회(CHAZ)의 카렌 시찰리 시칭가(Karen Sichali-Sichinga) 사무총장은 정부가 선교 병원 의료진 급여를 지급하고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중심 보건 모델 확대 움직임

CDI는 케냐에서 최근 지역 중심 보건 프로그램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CHAK는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운터 텐토링 모델'을 도입했다.

CHAK는 "이 모델을 네 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약 40%의 비용 절감과 50%에 가까운 인력 효율성 개선 효과가



©ChatGPT

나타났다"며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 해결책 필요"

잠비아 측은 해외 원조가 정부를 통해서만 전달될 경우 지역 의료기관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찰리 시칭가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보건 시스템이 정부, 민간 의료기관, 신앙 기반 의료기관, 전통 의료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파트너가 특정 영역만 지원할 경우 중요한 의료 서비스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 보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연구와 자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보건 원조 전략 변화... 새로운

협력 모델 등장

USAID 중심의 기존 모델 대신 미국 정부는 '미국 우선 글로벌 보건 전략(America First Global Health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정부 간 직접 협력 방식(G2G)을 통해 케냐, 잠비아, 우간다 등 국가와 장기 보건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력 모델은 미국이 장기적인 보건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파트너 국가들이 자체 보건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구조다.

케냐와 잠비아 보건 지도자들은 앞으로 해외 원조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디지털 보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의료 정책, 새로운 재정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의 문이 열릴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아이작 벡(사진)의 기고글인 '하메네이 사망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란 지하교회 폭발적으로 확산될까?'(Khamenei dead: Will Iran's underground church, fastest-growing in the world, explode?)를 2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아이작 벡(Isaac Beck)은 작가이며 체인지드 무브먼트(Changed Movement)에서 대화협력 및 정부 관계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필자는 오래전 경험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그 사건은 신앙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속 세계가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바라보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영적 서사를 본다. 억압이 무너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 그의 개인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폭정에 맞서는 결단의 사례로 보이며, 그것이 이란 국민에게 자유의 길을 열고 영적 부흥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시선이 크게 바뀐 것은 2021년 이라크의 한 은밀한 모임에서였다. 장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작은

은신처였다. 그곳에는 키보드의 전전한 연주와 함께 담대한 사명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다섯 명의 이란 여성들이 서 있었고, 그들을 둘러싸고 약 15명이 모여 있었다. 현지 쿠르드족 신자들, 오랜 세월 현지에서 사역해 온 서구 선교사들, 서구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현장 사역에 뛰어든 이들,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필자였다.

이 여성들은 국경과 ISIS 검문소를 지나 며칠 동안 위험한 여정을 거쳐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기도를 받고 영적 파송을 받은 뒤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과 외딴 지역, 소수 민족 공동체에 지하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기독교가 여전히 금지된 속삭임처럼 존재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

그들의 기도는 서구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와는 달랐다. 재정적 축복이나 일상의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대신 그들의 기도는 단순하고 단호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소서." 그들의 삶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란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자신들의 처형 위험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투옥되거나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했다. 그

런나 그 은신처에서 안수 기도를 받던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깊은 기쁨이 있었다. 순교의 가능성은 현실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믿음으로 이끄셨는지 이야기했다. 그중 일부는 "흰 옷 입은 사람에게 대한 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서 널리 보고되는 현상으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있던 두 자매도 있었다. 이제 30대 후반이 된 이 자매는 이번 사명을 위해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다. 이 땅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서구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희생이었다. 그들의 헌신은 필자를 깊이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후 신앙의 의심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필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곤 한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들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자에게도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 박해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이야기가 보여 주었다.

이후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필자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다. 중동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은 종종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큰 고통을 남겼다. 필자가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도 그러한 모순이었다. 강한 반미 정서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공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필자가 단순한 석유 이해관계로 보았던 미국의 개입을 실제로는 독재에서 벗어나게 한 해방이 필자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감사가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에 불완전한 행동조차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습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공식 발언을 통해 하메네이를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 중 하나"라고 지칭하며, 이번 작전이 정권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가져오는 사건이며 이란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말했다. 그 순간 필자에게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는 어떤 인식이 찾아왔다. 원칙을 지키는 지도력이 성경적 정의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물론 이것이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결정에는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통해서도 의로운 목적을 이루신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고레스 왕이다. 하나님은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부르며(이사야 44:28)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와 비슷하게 트럼프의 행동 역시 이란의 자유를 가로막아 온 장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권은 급진적 이념을 바탕으로 종교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 왔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그 체제의 중심을 흔드는 사건이며, 이는 민주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복음이 더 자유롭게 전파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알려진 이란의 지하교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욱 공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상명령이 가장 제한된 지역 중 하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비판자들은 이러한 개입을 제국

주의적 행동이나 석유 이해관계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 이상의 의미로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은 고대 제국의 몰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억압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오랜 상징인 페르시아의 사자가 다시 울부짖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항이 아니라 부흥의 소리일 것이다.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란을 상상해 보라. 그날이 오면, 복음을 듣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던 그 여성들의 기도는 결국 수백만 명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정의, 그리고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 받았다(히브리서 13:3).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속에서 어떤 이들은 혼란 속에서도 정의의 작은 빛을 보게 된다. 악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며 영적 각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려는 지도자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다.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고 이란에 새로운 새벽이 오기를 바란다. 폭정이 진리를 자리를 내어주고, 복음이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날 말이다.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야 할 것이다. 최승연 기자

## 중동 긴장 고조 속 월드비전 "아동 인도적 위기 심각"

식량·보건·아동보호 긴급 대응 확대



최근 긴장 고조로 레바논 남부와 베카 계곡,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수천 가구가 파괴됐다. 월드비전과 현지 파트너들은 피해 가족들을 위해 현장에서 긴급 식량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 아동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월드비전은 최근 발표를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4,480만 명의 아동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오랜 기간 이어진 전쟁과 강제 이주, 경제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긴장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미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아동과 가족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교육, 안전한 식수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드비전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동의 생존과 발달, 교육 기회 등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분쟁 영향 받는 아동 약 1억1천만 명... 식량·보건·교육 지원 절실

현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약 1억1천만 명의 아동이 분쟁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많은 아동이 식량 부족과 질병 확산, 교육 중단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또한 조혼과 아동 노동 등 아동권리 침해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과 영양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약 9,9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약 4,000만 명의 아동이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약 3,850만 명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약 7,570만 명의 주민이 안전한 식수 접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

타했다. 월드비전은 이러한 수치가 중동 지역 아동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 월드비전 "아동과 민간인 보호 최우선" 긴장 완화 촉구

월드비전 중동 및 동유럽 지역을 총괄하는 엘리너 몬비엇(Eleanor Monbiot)은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몬비엇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분쟁과 불안정 속에서 성장해 온 수백만 명의 아동이 어린 시절과 미래의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이 심화될 경우 교육과 보건 의료, 안전 등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몬비엇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과 민간인 이 보호받아야 하며 인도적 지원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긴장 완화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레바논 긴급 대응 확대... 식량·현금·아동보호 지원 추진

월드비전은 최근 긴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현지 대응팀은 대피소와 피난민 거점을 중심으로 따뜻한 식사와 즉식 식량을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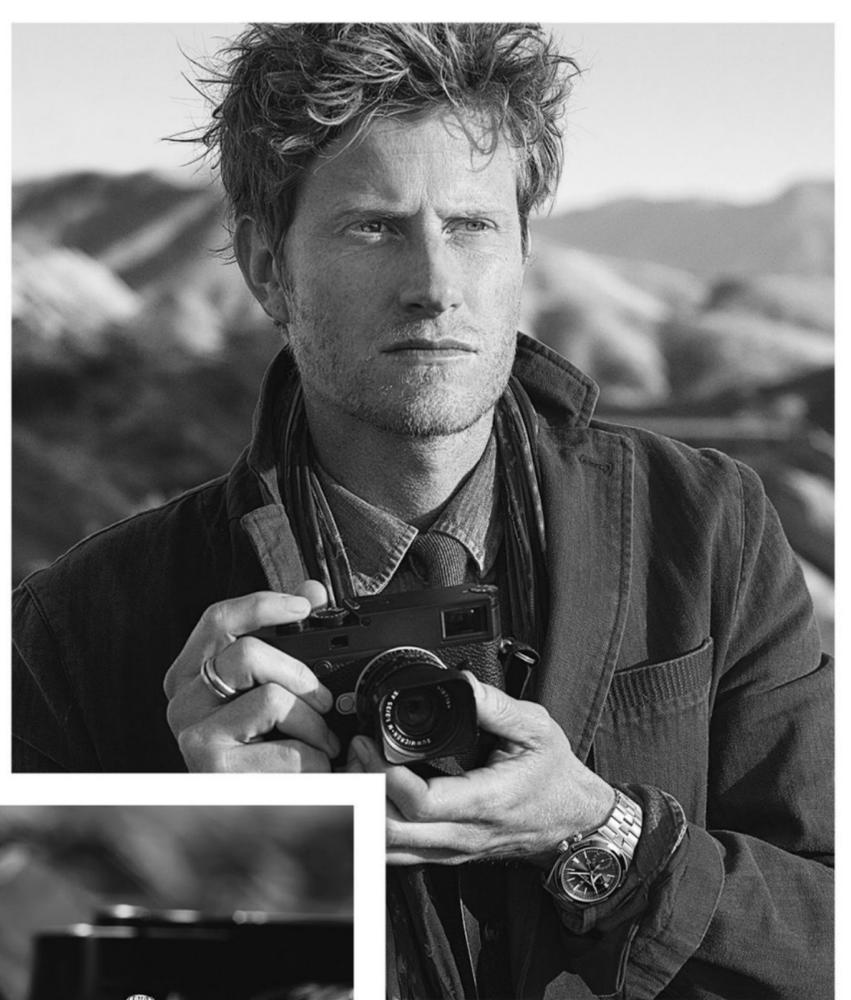
월드비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만5천 명 이상의 피해 주민에게 긴급 식량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 약 5천 명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초기 대응은 긴급 대응 기금과 기존 사업 자원을 활용해 시작됐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추가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월드비전은 향후 30일 동안 약 12만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5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대응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이 확보될 경우 긴급 식량 지원과 현금 지원, 식수 및 위생 서비스, 아동 보호 프로그램과 심리 사회적 지원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 ◆ 월드비전 중동 활동 확대... 장기 인도적 지원 지속

월드비전은 중동 지역에서 50년 이상 인도적 활동을 이어온 국제 구호 기관이다. 현재 월드비전은 이라크와 서안지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지역에서 긴급 대응과 장기 개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분쟁과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중동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동 아동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긴급 구호와 장기 개발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 ONE OF NOT MANY. GENÈVE

#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5:4의 오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사진)의 기고글인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it mean to fall from grace?)를 2일(현지시간)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썼고 미국 내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성경에는 분명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상당수가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씀이다.

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내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이 말씀은 수많은 신앙 고백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혹시 자신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의도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시편과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시 111:10; 잠 9:10)는 진리의 한 면을 보여준다. 또 다른 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어떤 구절들은 잘못 이해되어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바울이 말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이다. 이 구절을 읽고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만약 당신이 그런 염려를 해왔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 그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해석학(hermeneutics)’이라는 과정을 사용한다. 이는 성경 해석의 학문으로, 관찰(본문에 무엇이 있는가), 해석(그 의미는 무엇인가), 적용(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은 성경이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설득하며, 결국 변화시키는 삼중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관찰 단계에서는 사용된 용어, 문장의 구조, 문학 장르, 역사적 배경 등을 살핀다. 바울이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말할 때 이 배경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 교사들에 의해 침투당했다. 이들은 구약 율법과 관습을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구원과 섞으려 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갈 1:7), “괴롭게 한다”(갈 5:12)고 지적하며, 할례와 같은 율법적 관습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고 비판한다.

이 역사적 배경은 “은혜에서 떨어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 한 구절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적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해석은 하나다. 칼뱅의 말처럼, 성경은 풍성한 지혜의 샘이지만 사람이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텍스트는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먼저 교회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다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 한다면, 결국 “온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한다. 존 맥아더는 이를 “혼합 종교(hybrid religion)”라고 부른다.

따라서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이 오직 은혜(sola gratia)와 믿음(sola fide)으로만 주어진다. 한 조사에서 벗어나, 행위나 의식, 율법 준수에 의지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의미다. 거짓 가르침인가? 그렇다. 구원의 상실인가? 아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35%만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온다”는 전통적 성경적 관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중 일부는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 신자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 중에도 행위가 영원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롬 11:6).

“은혜에서 떨어짐”은 바로 이 경고다. 행위와 은혜를 섞으려는 유혹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경고다.

혼합 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을 빼앗고, 내가 과연 하나님 기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불안과 확신의 상실을 가져온다. 그리고 다시 두려움의 종노릇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위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설명한다.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지만, 율법 아래서는 자기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나 육신의 노력은 성령을 통한 믿음이 이루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근거를 바꾸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근거로 믿는 자리에서, 거기에 나의 행위를 더하려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버려야 할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바울이 말하듯, “이러한 생각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갈 5:8).

구원은 그리스도 플러스 무언가가 아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최승연 기자

## 교회 안의 정결과 교정: 하나님이 흔들고 계신 계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안다 알저(사진)의 기고글인 ‘분명한 사실: 잇따른 스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잡으시고 정화의 과정을 이끌고 계신다’(It's undeniable: God is judging and cleansing His Church amid scandals)를 25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안다는 35년 넘게 예배 인도자, 교사, 저자, 치유-상담 사역자, 강연자로 섬겨왔다. 아홉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 성숙해 가도록 격려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분명하고도 중대한 정결과 교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은사주의 진영에서 두드러지지만, 이는 여러 교단과 사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필자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과 화해해야 한다.

발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질문과 갈등을 안고 씨름해 왔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팻캐스터들과 여러 인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교회 안에 긴장-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 안에 있는 선지자적 마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고 싶어 한다. 동시에 목회자의 마음은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애도하며,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상처를 깊이 염려한다. 성경적 원칙을 편파 없이 따르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비-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이러한 교회의 폭로 상황을 두고 기도하던 중 성령께서 필자에게 “손을 수레에서 떼라”는 감동을 주셨다. 이는 사무엘하 6장 5-11절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다.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염려하여 손을 대었다가 즉시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처음 읽으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너무 가혹

한 처벌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절실히 필요한 교훈이다.

웃사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그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성물을 만지지 말라”(민수기 4:15)를 어겼다. 그는 고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잡근 방식을 정해 놓으셨다. 웃사는 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언약궤가 애초에 수레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행렬 자체가 이미 모세 율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궤를 레위인들의 어깨로만 메도록 명하셨다(역대상 15:2). 거룩하게 구별된 이 들만이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새 수레는 개인적 기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기발해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상태였다.

여기서 오늘의 교회와 분명한 평행선이

보인다. 지금 드러나고 무너지는 몇몇 ‘웃사’들은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의도와 고귀한 목적을 가졌던 인물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부분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역이 선한 열매를 맺어왔을지라도,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우리가 충격과 슬픔 속에 지도자들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도,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너뜨린 기준이다. 이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가르치고자 하시는 더 큰 교훈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실제적이며 강력하다. 그것은 더 이상 나무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 받아 그분의 임재를 세상에 운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록과 의로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 우리는 그 요구 조건을 타협해 왔다. 편의의 수레를 만들어 왔다. 인

격보다 퍼포먼스를, 성품보다 플랫폼을 강조하는 구조를 세웠다. 성경적 정직성보다 개인적 취향과 애매한 교리에 기초한 사역과 운동을 허용해 왔다. 거룩이라는 고된 길 대신, 메시지를 효율화하고 때로는 상업화하려는 길을 택해 왔다.

처음 의도는 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멈춰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허용해 온 집단적 타협에 대한 공동체적 회개도 필요하다. 이는 누군가의 의도를 변호하는 문제가 아니며, 폭로의 기술을 세련되게 만드는 문제도 아니다. 교회 전체가 타협한 지점에 대한 교정의 문제다. 우리는 개인의 죄뿐 아니라, 교회 전반에 스며든 오류와 왜곡을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모든 지도자가 동일한 범주의 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죄를 드러내는 자들 또한 정당한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반드시 필요한 일—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거

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사도행전의 가말라렐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상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능히 무너뜨리지 못하리라”(행 5:38-39).

지금 이 교정의 계절에서 우리 중 누구도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 모든 전개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난 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우리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분노나 보복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력과 정결, 책임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필자는 동시에 자신의 연루와 책임을 돌아본다.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적 성찰과 회개 속에서야 비로소 지속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연금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일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뱅크신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사무엘서 15. '혼란 중에 거둔 승리'



본문: 삼상 14:1-52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병거 3만, 마병 6천, 군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에 고작 6백 명의 병력으로 맞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엎드려 별벌 떨고 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으로 믿고,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고 확신하며(6절) 소년 병사 하나와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침입한다. 큰 바위로 둘러쳐진 요새라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보였지만 믿음으로 들어가 싸운다.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먼저 어느 나라를 침략하며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쟁이 방어 전쟁,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셨기에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거룩한 전쟁(holy war)’이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 제사부터 드린 거룩한 전쟁이다. 제사장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원한 것이다. 또 이 전쟁은 법계가 동원된 거룩한 전쟁이다(18절). 사울 왕이 법계 동원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금식하며 치른 거룩한 전쟁이다(24절). 이 역시 사울 왕의 명령인데 사실 전쟁 중에 금식 선포가 말이 되나? 고대 전쟁은 온종일 싸울 수도 있기에 군사들이 먹지도 않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금식을 했다는 것, 그만큼 절실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혼란에 빠진 전쟁**  
일사불란(一絲不亂)해도 이기기 힘든 전쟁이 금식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왕이 내린 금식 명령이지만 듣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이 야생 꿀을 짜어 먹고 만 것이다.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24절)이라는 왕의 선언 대로라면 요나단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금기야 요나단이 한마디 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29-30절). 군인들이 배만 고프지만 않았다면 승기를 잡고 더 몰아붙일 수 있었는 데가 고과 그렇게 못했다는 말이다. 지금 금식이 중요한가? 승리가 중요한

가? 어쩌보면 사울의 금식 강요는 하나님의 개입을 억지로 짜내려는 불신앙일 수 있다. 지금 같은 초비상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지 굳이 금식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울에게 쫓길 때 너무 배가 고파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성소에 진설하던 떡, 제사장들만 먹는 떡밖에 없었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떡을 내준다(삼상21:4). 계명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단이었었던 것이다.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자주 엇박자가 난다. 자신의 금식 명령을 아들 요나단이 어긴 것도 엇박자. 달아나는 블레셋을 밤새 추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엇박자였다. 묻는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다. 바보 같은 우문(愚問)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드러났는데 또 묻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답답한 것, 주저하는 것 아닐까? 이런 모습은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37절). 답답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며 제비뽑아 그 죄인을 찾겠다고 수선을 떨며 저주하기까지 한다(37절). 금식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것이다(44절). 이게 신앙인가? 세상에 이런 아비가 어디

있나?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에 매여 있을 뿐이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요나단이 참 대단하다. 아버지의 이 어리석은 처사를 받아들인다(43절). 장수답고 아들답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들고일어났다는 것이다.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45절). 백성들의 반발에 사울 왕은 신앙인 행세를 하다가 권위만 실추되고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사울은 정작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할 때 그렇게 못했다. 금식 명령이 해제되자마자 백성들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먹을 때 너무 배가 고파 피체 먹었지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33절) 그러기만 할 뿐, 적당히 넘어간다. 이 문제는 훗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다룰 정도(행 15:20)로 중요한 문제였다. 사울은 피를 빼고 먹게 한 곳을 제단으로 삼았다(35절). 야곱이 세웠던 벨렛의 돌처럼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영터리 제단과 다를 바 없다. 어리석은 금식 명령으로 이런 사단을 만든 장본인인 데에다 중한 죄도 처리를 못하고 어물쩍 넘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제단을 받아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영터리 같은 죄인의 예배라도 받아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승리하는 요나단**  
아버지 왕이 어리석은 데 비해 아들 요나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큰 구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은 요나단(45절).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용장이다. 막강한 블레셋 대군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6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멋진 표현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도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아니 주저앉기는커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으로 꼭 차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블레셋 진영에 간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아라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있던 곳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줄 알겠도다”(8-10절)며 그것을 표징으로 삼겠다고 한다. 이게 과연 표징이 될까? 만일 그들이 내려올 정도면 사기가 넘치고 자신감

이 있다는 증거지만 반대로 숨어서 올라오라 하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라오라”고 하자 요나단은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징으로 해석한다(12절). 그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 삼시간에 20명을 죽인다(13-14절). 엄청난 전과(戰果). 졸지에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떠다(15절). “들여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다”(16절). “떨었다”는 말이 반복되며 ‘큰 떨림이었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응답이다. 마중물 같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끌어낸 것이다. 이에 블레셋 진영은 혼란에 빠졌다.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20절).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했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편에 합세했고, 달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합류한다(21-22절). 이스라엘이 대승(大勝)한 것이다. 결국 극소수가 압도적인 다수에 이겼다. 성경은 늘 그렇다. 엘리야는 8501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가나안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도 소수였지만 승리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한다. 혼선이 있고, 혼란 중에 빠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구원이 있다(23절).

## 울음은 웃음을 낳게 한다



본문: 창세기 21:1-6  
설교: 이선구 목사 (대림다문화센터 대표, 연합교회 담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웃음에는 기쁨의 웃음만 아니라 비웃음도 존재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백 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믿음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의심의 웃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은 우리 인생이 참된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자에게 참된 웃음을 허락하신다.

우리 인생의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웃음을 주신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거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역사가들은 나폴레옹(Napoleon)이 유럽을 초토화했을 때 그 시대를 미래 세대가 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난 어린이들 가운데 훗날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 윌리엄 글래드스톤, 알프레드 테니스, 펠릭스 멘델스존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아브라함은 신중하고 조용한 반응을 보였지만 사라는 달랐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라고 고백했다(창세기 21:6).

또한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낳았느냐고 말하였으리요. 그러나 내가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다(창

세기 21:7). 사라를 결혼 실망시키지 않은 신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연약함과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의 후손을 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 동시에 이것은 잠자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구속사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

폐경을 지난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써 구속사의 중심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약속의 자손을 보존하고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한다. 이 사건은 잠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본 사라는 두 아이가 계속 함께 자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라가 느꼈을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며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사라의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과 함께였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다. 사라의 배려로 아브라함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잃고 교만해졌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된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받은 축

복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고통과 방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인생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간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지치고 넘어지기도 한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물과 같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끝이 있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며 아침 안개와 뜬 구름처럼 사라진다.

혹시 아직 가족 부대의 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방종과 낭비, 방황과 사치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세계는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는 결코 헛되이 울지 않는다. 고난의 눈물 없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보시고 샘물을 준비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도 이사가 43장 18-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마침내 우리 삶에 참된 웃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빈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http://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http://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 & Johnson

# 웨슬리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정치사회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분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신앙과 사회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웨슬리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목

회자요, 부흥사요, 사회개혁가였다. 그는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거룩함과 더불어 사회적 거룩함(social holiness)을 강조하였다. 웨슬리는 “복음에는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노동자들을 돌보며,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웨슬리 시대의 영국은 산업혁명 초기로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시대였다. 웨슬리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웨슬리 운동은 단순한 교회운동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변화

시키는 영적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교회가 정치권력과 결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회의 사명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정치적 당파성보다 복음의 보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교회가 특정 정치세력에 종속될 경우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웨슬리의 관점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정치와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 이러한 전통은 매우 귀중한 신앙적 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정치적 갈등 속에 깊이 휘말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특정 정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회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교회의 사명은 정치적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다(마 5:13-16).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공동체이다. 웨슬리의 신앙은 개인의 경건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강조한다. 그는 “세상에 성

결을 확산시키는 것”을 감리교 운동의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단순한 개인적 도덕성을 넘어 사회적 사랑과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웨슬리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가 정치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회는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는 사회 불의와 부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사회 갈등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분열을 확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

와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진영 논리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깊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웨슬리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다시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이다. 사랑과 정의, 공의와 평화의 가치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천할 때 교회는 다시 사회의 빛이 될 것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 하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최근 사무엘상 1장 하나의 기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설교에 등장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하나가 아들이 없는 까닭에 아들을 가진 브나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후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1장 10절에 나온다. 자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본때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 난 후 아들을 바치는 헌신 기도로 바뀌었다고 얘기한다. 인간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헌신적인 기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된다. 이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구절이 있다면 15절이다.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자기 심정을 통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라는 것이다. 이 구절을 하나와 하나님이 서로 통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원어로 보면 “but I have poured out my soul before the LORD”라 번역할 수 있다. 즉 “하나가 자기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하나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일 뿐이다. “하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라 해석할 여지가 없단 말이다. 하나의 기도가 나오는 삼상 1:10-11을 확인해 보자.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도...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본문의 순서를 보면 하나는 “마음이 괴로운(ἄσπετος, 쓴 영혼) 상태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서원했다”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서 하나의 기도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이해할 여지는 전혀 없다. 여기서 “서원하다”(ἑστημι)는 ‘기도의 결정’이지, 기도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그녀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여인이다. 하나의 기도는 흥정이 아니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래가 아니라 “나실인 헌신적 서원이다. 당시 자식을 얻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 역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나는 단순히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 받는 아들을 구한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다. 그녀의 모습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름을 볼 수 있다. 사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돌려보냈다. 하갈이 임신하며 그녀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래

를 멸시했다. 그러자 사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창 16:5)라고 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래가 하갈을 확대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하나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은가? 하나는 다른 아내인 브나냐가 괴롭게 했어도 대적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올림을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갖고 난 이후 젖을 떼자마자 그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모습이다. 그동안 젖을 먹이며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르다 했거늘,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바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약속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나온 헌신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다. 그렇다. 위대한 작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눈물의 회생과 헌신이 뒷받침된 배경에서 탄생하는 작품이다. 이 하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했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 기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기도일 때가 많을 것이다. 무고한 핍박 속에서도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 임종시 힘이 되는 성구(1부)-2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13. 영원한 팔로 안아주심 (시명기 33: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 의마: 기력이 다해 쓰러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계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14. 육체 너머의 소망 (고린도후서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 의마: 낡아진 육신을 벗고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15. 영원한 빛으로의 인도 (이사야 60: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 의마: 죽음의 어둠을 지나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16.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 (이사야 46: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

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 의마: 태어날 때부터 임종의 순간까지 변치 않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 하심을 의지합니다.  
17.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 (고린도전서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 의마: 이제 곧 그리워하던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설렘과 기쁨을 줍니다.  
18. 영혼의 빛 (히브리서 6:19)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빛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 의마: 흔들리는 죽음의 파도 속에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 의마: 낡아진 육신을 벗고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19. 잠드는 자를 위한 위로 (데살로니가 전서 4: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 의마: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며, 다시 만날 약속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20. 주의 소유 됨 (로마서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의마: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을 분명히 해줍니다.  
21. 고요한 신뢰 (이사야 30:15)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 의마: 마지막 순간 육체적 고통분투를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평안을 줍니다.  
22. 눈동자같이 지키심 (시편 17: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얹주소서.”  
• 의마: 가장 연약한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게 합니다.  
23. 영광의 조우 (시편 16: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 의마: 죽음의 문을 열었을 때 맞이 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고대하게 합니다.  
24. 마지막 승리의 찬송 (시편 48: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 의마: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탐 임종을 앞둔 분에게 이 성구들을 들려주실 때는 천천히, 그리고 평온한 어조로 읽어주세요. 때로는 손을 부드럽게 잡아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라는 짧은 고백을 덧붙이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계속)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광야 교회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눈 덮인 광야에서 주인공이 찬양하는 장면이 일품이었다. 감독은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몽골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한반도에는 광야가 없다. 광야의 이미지는 곧 ‘황망함’ ‘고독’ ‘고난’을 연상케 한다. 성경은 세례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 정중도 없고, 듣는 이가 없었지만, 그는 거침없이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를 증거 했다. 세례요한은 곧 나타나실 메시아를 증거 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념에 풀기도 감당키 어렵다’고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은 메시아의 선구자요, 한낱 종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세례요한은 가난했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다. 그는 선지자로서 메시아 오심을 외치고, 불의한 헤롯 장권을 지적하다가 결국 목 베임을 당하여 순교의 잔을 마셨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날이 장차 올 것이다”라고 했다. 즉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꽃과 열매를 맺는 옥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인간의 죄 된 심령을 상징적 언어로 표현했다. 사실 이스라엘 현지가 가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야의 표현처럼, 중동과 이스

라엘은 광야와 사막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지형적으로 산천이 아름답고, 강이 유유히 흐르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세계에서 축복받은 금수강산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깊게 병들었고 망가졌다. 그래서 정치, 경제, 법조계 등 모든 곳이 광야 같고 사막같이 메말라 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대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다. 60만이 넘는 대중들을 이끌고 광야 사막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가 생겨남과 동시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다. 특히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가 위대한 설교를 하자, 기득권 세력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고, 결국 스테반은 신약 시대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사실 스테반의 설교는 구약 개론이라 할 수 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성경의 핵심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

스테반은 그의 설교 중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그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다. 광야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와 내용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공동체가 광야 교회라면,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공동체 안

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함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회의 목적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1차 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다’(H. Ridderbos).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아니고, 마귀식 변역 신학과 신앙이 한국의 모든 교회를 점령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세상이야 죽어 되든, 밥이 되든 내 알 바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행복 추구’와 ‘소원 성취’의 종교로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교회의 부패와 세상의 불의를 향해 목숨 걸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없다. 모두가 타협하고, 아첨하고, 중도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하여 사기꾼과 도적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어도, 누구 하나 입도 벌긋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지난 3.1일 절 107주년, 부산 서면에 위치한 ‘광야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다. 그런데 젊음의 거리에 세워진 광야 교회는 그냥 텅 비어 있었다. 반면에 거리의 좌우로는 젊은이들이 빼곡히 몰려다녔다.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다녔지만, 복음을 들으려는 자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무심했다. ‘광야 교회는 무슨 정치 사위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외쳤던 ‘복음 운동’이 없었다면, 3.1운동도 없었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불가능했다’라는 말을, 허공을 향해 쏘아 올렸다.

1885년,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사람들을 새롭게 했고, 그렇게 깨어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일제에 항거하는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 힘을 얻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민중을 깨웠고, 민중을 이끌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다. 일찍이 바울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대’라고 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머리 밀린 삼손처럼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광야에서 순결한 복음을 피 터지게 외치는 자들을 기다리면서...

# 社說

## 러-우 포로 교환, 북한군 포로는 어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 포로 교환이 개시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의 직접 면담에서 북한군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한국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는 전쟁 포로 각 500명씩 교환하기로 합의, 총 1000명을 이미 집으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번 포로교환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지난 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송환 요구 명단에 북한군 포로 2 명이 여러 차례 포함된 사실을 공개해 충격을 던졌다.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할 거란

관측은 있었지만, 러시아가 포로 송환을 공식 요구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이런 사실을 우크라이나 의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유추해 볼 때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송환을 요구했다면 그 뒤에 북한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쟁 당사자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으로서 포로 송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 이들을 북으로 데려가려는 거다.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는 그동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돌아가면 멀쩡한 사람”이라며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 한 송환 요구 명단에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송환을 위한 실행 의지를 내비치지 않아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

나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직접 면담에서 북한군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한국행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들(북한군 포로)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개) 보고하겠다”는 말로 북한군 포로 한국행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을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하지 않고 한국행에 협조하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에 하나 이들이 러시아로 보내져 북으로 끌려간다면 그 뒷일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두 번째 생사의 갈림길에 선 북한군 포로들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것이다.

##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미주 한인 신학대들

미주 4개 한인 신학대학이 미국 릴리재단으로부터 약 150억의 지원을 받아 목회자와 평신도 양성에 매진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그레이스미션대 학교(GMU), 월드미션대학교(WMU), ITS신학대학원(ITS) 등 4개 신학대는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 연합을 통한 차세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양성에 새 모델을 제시할 거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릴리재단(Lilly Endowment Inc.)은 인디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민간 자선 재단으로, 1937년 J.K. Lilly Sr.와 그의 두 아들에 의해 설립된 후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 발전, 교육, 종교 분야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미국 내 신학교들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지원금 수혜 기관을 모집했는데 이들 네 신학교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최종 선정된 거다.

네 학교가 릴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총 지원금은 미화 1천만 달러, 우리 돈 150억원 규모다. 로, 이 중 700만 달러는 향후 5년간 프로그램 실행 비용으로 사용되며, 네 학교가 내년 말까지 100만 달러를 모금할 경우 1대3 매칭 방식으로 3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CPU 이상명 총장은 22차 릴리에 걸친 논의를 통해 네 학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온 과정을 소개하며 시간이 갈수록 신학대간 협력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ITS 이 승현 총장은 이런 협력을 기반으로 네 신학대가 더욱 연합해 차세대 목회자

와 교회 지도자 양성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최근 미국 내 한인 신학대들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등 발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2세 교육 인프라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교명 변경을 통해 한인 신학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문화 다민족 유치를 시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주지역 4개 한인 신학대가 저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연합과 협력을 선택했다는 건 큰 의미를 지닌다. 신학대 간의 연합과 협력의 목적이 단지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함만은 아니라 이로 인해 안정적인 기반위에 미래 세대 교육과 양성에 힘을 쓸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 될 것이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739-8119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10-2700-3297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스위스 '농부 교회' 등장... 농업 생활에 맞춘 새로운 예배 모델 주목

### 주일 예배 시간과 공동체 활동을 농부들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정... 스위스 농업 공동체 중심의 신앙 모임 확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스위스 동부 지역에서 농부들의 생활 방식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교회 모델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스위스 독일어로 '농부 교회'를 의미하는 '푸레 교회(Puure-Church)'는 전통적인 주일 예배 형식을 농업 생활의 리듬에 맞게 조정한 공동체로, 농업 종사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다.

현지 매체 *Dienstagsmail*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2019년 스위스 동부 생갈렌 라인 계곡(St. Gallen Rhine Valley)에서 출범했다. 농부들이 기존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농부의 삶에 맞는 교회 필요'... 예배 시간과 형식 변화  
푸레 교회의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알

트슈테텐(Altstätten)의 농부 에른스트 라이분트구트(Ernst Leibundgut)는 농부들이 전통적인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교회 종이 오전 9시 30분에 울릴 때 많은 농부들이 여전히 축사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거나 막 샤워를 하려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푸레 교회는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 30분으로 늦추고,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예배 이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라이분트구트는 농부들에게 가능한 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푸레 교회는 라이분트구트 부부와 두 쌍의 부부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로, 농업 가정의 일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농업 공동체 현실 반영한 신앙 공동체

농업 종사자들의 삶은 도시나 사무직 직종과는 다른 일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이분트구트는 농부로 살아가는 삶이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른 리듬과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부들은 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1년 내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하루 24시간에 가까운 노동에 이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가족 생활과 사회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푸레 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농부들이 신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모임은 매달 세 번째 주일에 열리며 40명에서 80명 정도가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라인 계곡뿐 아니라 베르텐베르크(Werdenberg), 토겐부르크(Toggenburg), 아펜젤(Appenzel) 등 주변 지역에서도 찾아온다. 또한 참석자 연령층도 다양한데 어린 아이부터 80세 이상의 노년층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모임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며, 루티(Rüthi)에 있는 작업장 시

도 예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교단을 넘어선 열린 공동체

푸레 교회는 알트슈테텐과 그라브스-감스(Grabs-Gams)의 개혁교회 공동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살레츠(Salez)의 토마스 베르레(Thomas Beerle) 목사가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단을 초월한 팀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혁교회, 가톨릭, 자유교회 등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서 왔으며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

운영진은 푸레 교회를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라기보다 신앙을 중심으로 한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설명했다.

최근 열린 한 모임에서는 자유 사역자이자 성인 교육자인 바르바라 보이슈(Barbara Beusch)가 15세기 스위스 농부이자 신앙인으로 알려진 니클라우스 폰 플뤼에(Niklaus von Flüe)의 삶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결혼해 10명의 자녀를 둔 농부였지만 50세에 가족을 떠나 하나님께 헌신



농부들은 종종 새벽이 되기 전부터 축사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이 스위스 생갈렌 라인 계곡(St. Gallen Rhine Valley)에서 '푸레 교회(Puure-Church)'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하는 은둔자의 삶을 선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강의 이후 참석자들은 테이블 토론을 통해 그의 선택이 가진 의미와 신앙과 일상의 균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과 신앙을 연결하는 공동체

푸레 교회의 운영진은 신앙이 반드시 교회 건물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라이분트구트는 축사에서 일을 하며 고무 장화를 신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레 교회는 정기적인 예배 외에도 연 2회 농작 축제를 열어 음악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성경 모임과 토론 모임, 맥주 양조 체험이나 골프 모임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금창초등어린이집, '좋은이웃어린이집' 협약 체결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본부장 배광호)는 최근 금창초등어린이집(원장 조진애)과 '좋은이웃어린이집'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좋은이웃어린이집' 캠페인은 NGO와 어린이집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굿네이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나눔인성교육, 아동성권리교육 등을 진행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해외 아동을 정기후원으로 지원한다.

조진애 금창초등어린이집 원장은 굿네이버스 유아교육전문위원으로도 위촉되었으며,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에서 부산 지역에서 진행하는 유아 교육 사업에 대한 자문, 가족그림편지쓰기대회 심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배광호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장은 "굿네이버스는 지역 내에서 나눔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과의



사진은 금창초등어린이집(원장 조진애)에게 '협약인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굿네이버스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은 앞으로 자라날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아기관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은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으로 유아기관을 포함해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 지역 내 '좋은이웃가게'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곳은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051-711-567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승연 기자

##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지역 어린이집 4곳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소장 김원태)는 최근, 대구 지역의 4개 보육기관과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뜻을 모은 보육기관은 별하늘어린이집·비산4동어린이집·서대구어린이집·영무예다움어린이집으로, 협약은 보육 현장에서 드러나는 위기아동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상담·사례관리·정서지원·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위기아동 발굴 및 사례 연계 △보육 및 정서지원 협력 △부모 상담 및 양육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 지원체계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아동의 조기 개입과 지속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계속한다.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에 임한 관계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이번 협약은 지역 보육기관과 복지기관 간 협력 기반을 넓히고, 한부모가정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태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장은 "어린이집은 아동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기에 현장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보육 과정에

서 발견되는 가정의 어려움을 전문기관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3월 문을 연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 교육·지원, 심리상담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조모임 운영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건비앤코

대표 최훈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건비앤코(주)**

###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종교학 또는 신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사-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력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력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④

'바른예수교회'는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릴까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이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담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는 것을 저들의 핵심 사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일부 이단사교에 있는 기독교의 종파에서도 '천국은 없다', '부활도 없다', '부활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정 부활이 있다면 현재의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건니까? 이렇게 한없이 누추한 모습으로 영생한다면 그러한 모습의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또한 예수가 무지막지한 실인강도들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 선과 악의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까? 동시에 인류역사상 목숨까지 바쳐가며 어려운 이윤을 위하여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선행의 공덕은 헛된 일로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살인, 폭력, 저주, 강도, 도적, 음란, 사기, 모략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어두운 사회로 계속 유지되고 갈 것입니다. 요컨대 이 세상이 지옥화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옥 생활을 연습하는 셈입니다.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한 악행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삶을 믿고 보람받은 사람이므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실이요, '심자의 도'를 걸어가야 하는 실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는 자들은 '선로를 이탈한 기차'를 탄 자들입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급박한 목회자와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사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감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남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반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회

###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비산동 교회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분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60개 언어 번역

S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 삶으로 드리는 예배

### 신간 '일터선교'



이 책은 많은 성도들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품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 "신앙을 지키면서도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단순한 개인적 고민으로 보지 않고, 신앙과 일의 관계를 다시 묻는 신학적 문제로 접근한다. 저자는 현대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성속 이원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예배의 영역을 '성스러운 것으로, 직장과 노동의 영역을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은 이러한 구분이 성경적 관점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직장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은 '주일만의 보스가 아니며 예수님은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 또한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 역시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일터선교는 단순히 직장에서 전도지를 나누거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자는 일터선교를 전통적 선교 개념과 구별하며 설명한다. 전통적인 선교가 '미전도 종족을 향한 지리적 확장'이었다면, 오늘날의 일터선교는 세속화된 사회 영역 속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영역적 확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현장으로 이해된다. 책은 일터선교의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 역사 속 사례도 소개한다. 모라비아 공동체, 위그노 신앙인들, 동인도회사 사목 활동, 그리고 한국의 군인교회 운동 등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일터가 실제로 선교의 현장이 되었던 발자취를 추적한다. 특히 평신도의 역할에 주목하며,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평신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한다. 교회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을 넘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일터선교》는 결국 일터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도록 독자들을 초대한다. 사무실과 공장, 학교와 병원, 가정과 다양한 직업 현장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예멘동산에서 시작된 예배가 교회 건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터로 확장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는 더 이상 세속적 공간이 아니라 신앙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자리다. 최승연 기자

### 신간

##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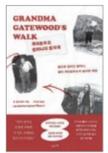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들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신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세워 주는 책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흔들리기 쉽다. 이러한 심리를 파고든 이단 단체들은 성도들에게 현재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결국 왜곡된 성경 해석과 교리로 이끌어 간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성도들이 바른 구원 이해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전반부는 신자의 구원을 흐드는 다양한 가르침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 주변에서 발

견되는 구원론의 오류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구원의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가르침,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주장, 특정 절이나 구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새로운 구원을 강조하는 주장, 혹은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책은 또한 회심과 회개를 혼동하는 문제도 짚는다. 일부 단체들은 끊임없는 회개와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며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죄에서 돌아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함께 포함되며,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순간을 의미한다. 반면 회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과정이다. 이러한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자는 계속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라

는 불안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의 후반부는 구원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으며,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건이다. 따라서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는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동시에 이단의 미혹을 분별하고, 복음 안에서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서이기도 하다. 최승연 기자

## 애팔래치아 트레일 완주... 67세 여성의 역사적 도전

500km 종주로 최초 여성 단독 완주 기록 '게이트우드 할머니의 발자국'으로 다시 조명



1955년 미국에서 67세의 여성 엠마 게이트우드는 가족에게 "산책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146일 동안 약 3500km를 걸어 메인주 카타딘산 정상에 도달하며 애팔래치아 트레일을 혼자 완주한 최초의 여성 종주자가 됐다. 애팔래치아 트레일은 조지아주에서 메인주까지 14개 주를

통과하는 미국 대표 장거리 트레일이다. 긴 거리와 험한 환경 때문에 완주가 쉽지 않은 길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게이트우드의 도전은 미국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게이트우드는 약 1년 동안 준비하며 요양원에서 일해 여비를 마련했고, 매일 걷기 연습을 이어갔다. 1954년 첫 도전에서는 길을 잃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 다시 트레일에 올랐다. 여정은 쉽지 않았다. 개에게 물리고 안경이 부서지기도 했으며, 신발 밑창이 닳아 떨어질 정도로 길은 험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게이트우드는 이후에도 걷기를 이어갔다. 77세에는 애팔래치아 트레일을 세 번 완주한 최초의 인물이 됐고, 84세까지

트레일 정비 활동에도 참여했다. 평생 동안 그가 걸은 거리는 약 2만2500km에 달했다. 그는 걷기에 대해 "한 발을 내딛고 또 다른 발을 내딛는 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게이트우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11명의 자녀를 키우며 오랜 시간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게 트레일은 명성이 아니라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길이었다. 이 이야기는 탐사보도 기자 벤 몽고메리가 쓴 책 '게이트우드 할머니의 발자국'을 통해 다시 소개됐다. 책은 게이트우드의 일기와 편지,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과 가족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의 여정을 기록했다. 최승연 기자

### 3월, 작가들의 말말말



궁궐은 초기 교회의 성령 이해가 본질적으로 유대적이고 체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의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 "초기 기독교가 어떤 현상을 성령의 활동으로 판단한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궁궐에 따르면 그 증거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특성이나 하나님의 목적과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설명을 넘어서는 신비롭고 강력한 행위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궁궐은 초기 교회가 성령의 선물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활동을 방언(glossolalia)으로 이해했다고 보았다. 방언은 성령의 신비롭고 강력한 특성이 최고로 드러나는 활동으로, 궁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방언 속에서 개인은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강력한 힘에 압도된다. 로버트 멘지스 '성령, 증언의 능력'



구속사의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태초에 하나님이 구속해 놓으셨던 파괴적 물들을 풀어 놓으심으로 혼돈이 땅에 되돌아오게 되었고, 악한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 있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노와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연계되어서,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한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다. 홍수의 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불을 통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그의 구원하심은 (한 여정의 처음과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구속사의 진전 속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전망을 제공해 준다. 이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한 지점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후 5:21)라고 쓰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데 어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을 능가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심지어 최후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을 능가할 것인데, 그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정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 세계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무엇보다 언어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창이 되었다. 타갈로그어 속에 담긴 속담, 유머, 일상적인 인사말 하나에도 필리핀 사람들의 가치관과 공동체적 정서가 녹아 있었다. 언어를 통해 나는 그들의 눈물과 웃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복음을 그들의 삶 속 언어로 풀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신앙의 표현까지도 담아내는 그릇이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언어를 넘어 문화를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 '말'은 곧 '삶'의 방식이며,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의 언어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적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게 할 것인가?'라는 신학적 과제와 직결된다. 박정배 '말과 마음'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가뭇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효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52)

## 신약기독교의 출발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독교가 완전한 구성을 이루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와 민족 안으로 제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증거 한다.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

“나는 이스라엘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던 초기 시대에까지 오직 이스라엘에게로만 제한되었다. 역사학자 중에는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의 확장으로 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교만의 하나님이었는 데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메시아 거부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도처에서 세계적 기독교가 하나님의 신적작정에 의하여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진 것이라고 선포한다. 기독교가 창세전부터 작정되어진 세계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오직 이스라엘의 교회로만 제한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때문이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통일성을 이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자신이 기독교의 오직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중심이며 머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기까지는 기독교를 하나의 단일적인 교회로 제한시켜야 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가단위 또는 민족단위, 부족단위로 교회들이 세워졌다면 기독교는 설립되기도 전에 이미 이상승배적 사이비종교로 수없이 분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미 유대교가 여러 종파로 분열되어져 있음을 통하여 증거 된다. 때문에 하나님

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독교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선포되기까지는 기독교를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단일교회로 제한하셨던 것이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한 후에 사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적 기독교 확장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기독교의 근원이며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한 후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적 기독교를 선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과 3년(AD4-33)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3년 역사는 아담교회 이래 그때까지의 모든 기독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이후의 모든 교회 역사를 총괄하여 대변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위업을 이루었다. 4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적 기독교를 다양한 차원에서 증거하고 선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고 진행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일체가 완전하게 계시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일체가 상징적이며 예표적인 것으로 주어졌고 그것도 서서히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일체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예고되고 계시되었던 메시아가 곧 자신임을 선포했고 따라서 자신이 곧 기독교의 주체임을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을 통하여서만 가능할 뿐이며 자신을 통하여서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상징적, 예표적, 점진적, 미완성적으로 주어졌던 기독교의 신학체계를 구체적, 실제적으로 완성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신학 체계를 문서로 정립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정립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자들과 사도바울을 통하여 문서화 되었고 그것이 성경으로 정립되었다. **교회조직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다대오, 시몬, 유다 등등의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조직을 세웠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운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교회조직을 구성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교회조직은 훗날 사도들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세운 12제자가 곧 교회조직의 시작이며 동시에 완성이다. 교회조직은 이미 광야교회시대에 성막교회와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상징과 예표로 주어졌으며 특히 여호수아시대의 12부족교회를 통하여 더욱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사사시대교회와 왕국교회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조직은 와해되어져서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고 왕국교회가 무너진 후 포로교회시대와 유대국에 대한 이방인들의 식민통치 과정에서 완전히 이교적인 것이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은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세워지게 되는 교회조직을 감안할 때 교회조직의 개편, 또는 교회조직의 재건으로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교회조직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교회조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교회조직에 대한 상징과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12제자를 통한 교회조직은 지금까지의 교회조직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적용하였다. 그것은 훗날 사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조직의 형태가 광야시대로부터 세워진 교회조직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과정에서 증명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교회조직은 대체사장을 최고 지도자로 하는 조직형태였다. 대체사장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체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예표였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함에 따라 대체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조직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하에 지교회들을 인도하고 대표하는 직분 자들이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 Deep 바이블 신구약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2)

### 이 당시의 유대인의 상황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후 사마리아에는 혼합주의가 만연해졌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정착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위협을 느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 귀환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부했고,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원수로 지내게 되었다.

### 이집트의 엘레판틴의 유대인들

이집트 엘레판틴(Elephantine)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들은 BC 500400년 사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준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라 자부하며 유월절을 지켰으나 종교 혼합주의적 성향도 보였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뜬 독자적인 신전을 세우기도 했다.

### 디아스포라의 회당

바벨론 포로기에 최초의 회당(synagogue)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성전 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기도와 율법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회당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세워질 정도였으며,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결정은 디아스포라

에게도 유효했다.

### AD 23세기의 회당 예배의 요소

회당 예배는 쉘마(Shema) 낭독, 기도, 율법과 선지서 낭독 및 통역(Targum), 성경 교훈 설명(설교), 제사장적 축복 등으로 구성되었다.

### ◆헬레니즘 시대

#### 헬레니즘의 전파자 알렉산더 대왕

BC 336년 즉위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그리스 문화를 수용했다. 그는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소아시아, 페니키아, 애굽을 점령했다. 애굽인들은 그를 해방자로 환영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세웠다. 알렉산더는 동진하여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나 323년 3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수한 헬레니즘이 전파되었다.

#### 알렉산더 사후의 분열 및 톨레미 왕조 치하의 유대인

알렉산더 사후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되었다.

안티고누스: 지중해-중앙아시아

카산다: 마케도니아

톨레미 라가: 이집트와 남부 시리아

리시마쿠스: 트라키아

이후 팔레스타인은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분쟁지가 되었다. 톨레미 통치기에 의인 시몬(Simon the Just)이 대체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했다.

#### 셀류키드 왕조 치하의 유대인

안티오커스 3세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후, 헬레니즘 수용 압박이 거세졌다. 특히 안티오커스 4세(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탄압했다. 그는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등 '멸망의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고 성경 사본을 파괴했으며 이를 어기는 자들을 처형했다.

#### 유대인에게 미친 헬레니즘의 영향

헬레니즘은 유대교에 큰 도전이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LXX)이 번역되었고, 필로(Philo) 같은 학자들은 헬라의 풍유적

해석을 성경 연구에 도입했다.

#### 마카비 왕조와 반헬레니즘

제사장 맛다다야스가 이방 신 숭배를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하누카(Hanukkah)이다. 이후 시몬이 대체사장이 되며 '하스몬 왕조'가 출범하여 독립을 쟁취했다.

#### 하스몬 왕조의 성장과 쇠망

하스몬 왕조는 영토를 확장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헬라주의자인 사두개파와 경건주의자인 바리새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알렉산더 안네우스 같은 왕들은 바리새인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기도 했다. 결국 형제간의 왕위 다툼 속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개입하면서 BC 63년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 신구약 중간기의 신학적 사상

신론: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 여겨 성호를 직접 부르기를 주저하고 '하늘', '그 이름' 등의 완곡어를 사용했다.

천사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로서 천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천사들의 이름(미카엘, 가브리엘 등)과 계급이 체계화되었다.

마귀론: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의 후예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벨리알 등이 우두머리로 언급되었다.

율법관: 율법은 영구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여겨졌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발전했다.

지혜: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시하며 율법과 지혜를 하나로 보았다.

죄: 죄의 기원을 마귀, 하와, 혹은 아담에게서 찾았으며 속죄를 위한 제사와 선행이 강조되었다.

율리관: 율법 준수가 삶의 목적이 되었고, "스스로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황금률이 등장했다.

종말론: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과 내세에 대한 신앙이 종교의 근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중간기 문헌들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들이 자주 등장한다.

메시아 신앙: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가 나타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초월적 메시아관이 발전했다.

#### 신구약 중간기의 연대표

##### 페르시아 시대 (BC)

539: 고레스의 바벨론 함락  
515: 예루살렘 성전 재건  
486-465: 아하수세로 1세 (에스터 시대)

464-424: 아닥사스다 1세 (느헤미야 시대)

##### ◆헬레니즘 시대 (BC)

334-23: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175-163: 안티오커스 4세의 유대인 박해

167: 맛다다야스의 반란 시작  
164: 성전 불헌 (하누카의 기원)

142-135: 하스몬 왕조의 독립 기간  
63: 로마 폼페이 장군의 예루살렘 점령

374: 헤롯 대왕의 통치  
열방선교단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 [뇌치유상담/신경신학편(16)] 시냅스 변형,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1)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시냅스 변형(Synaptic Modification)이란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원리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변화 결과를 말한다. 즉, 반복된 자극이나 특정 경험 후에 시냅스에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분자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수준의 변화이다.

- 1) 주요특징
  - (1) 구조적 변형
    - 수상돌기 가지(dendrite spine)가 커지거나 새로 형성된 상태
    - 시냅스 접촉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
  - (2) 기능적 변형
    - 시냅스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량이 증가된 상태
    - 특정 시냅스에 수용체(예:AMPA,

NMDA)의 수가 증가된 상태, 밀도의 변화

- (3) 시간 스케일
  - 단기(초, 분) : 시냅스 촉진, 억압
  - 장기(시간-평생) : 장기강화(LTP), 장기억압(LTD)

시냅스 변형은 가소성이 실제로 구현되는 현상 수준의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시냅스 변형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일어나고 시냅스 가지돌기는 몇 시간 안에 생성되었다가 파괴되며, 새로운 세포들은 며칠 단위로 태어났다가 죽는다.

훨씬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신경가소성 유형도 있다. 예를 들어 뇌는 아동기 말에서 청년기 초까지 가소성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상태로 발달하고, 시력 또한 정력을 잃거나 뇌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수주, 수개월, 수년 동안 서서히 변화가 유도된다.

- 2) 주요 수용체의 역할
  - 시냅스 후 뉴런의 막에는 두 가지 주요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가 존재한다.
    - AMPA 수용체 : 글루타메이트가 결합하면 나트륨(Na+) 이온을 통과시켜 세포를 탈분극시킨다



시냅스 변형은 반복된 자극이나 특정 경험 후에 시냅스에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분자적 변화를 의미한다.

·NMDA 수용체 : 평상시에는 마그네슘 이온(Mg<sup>2+</sup>)이 통로를 막고 있어 이온이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강한 자극으로 세포막이 충분히 탈분극되면 마그네슘이온(Mg<sup>2+</sup>)이 빠져나가며 칼슘이온(Ca<sup>2+</sup>)을 유입시킨다.

시냅스 변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극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연결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고빈도의 자극이 반복될 때는 장기강화, 저빈도의 자극이 지속될 때 장기억압(LTD)으로 나타난다.

보통 시냅스에는 AMPA 수용체와 NMDA 수용체가 함께 존재하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MPA는 일상적인 뇌 활동의 기본신호를 담당한다. NMDA 수용체는 강한 자극이 올 때만 활성화되어 학습을 유도한다.

3) AMPA 수용체의 역할  
우리 뇌 안에서는 이 수용체가 AMPA(α-amino-3-hydroxy-5-methyl-4-isoxazolepropionic acid)가 아닌 글루타메이트(Glutamate)라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에 반응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넓게는 이오노트로픽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AMPA 수용체는 중추신경계에서 빠른 흥분성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핵심요소이다.

·신호전달의 시작 :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방출되어 AMPA 수용체와 결합하면, 수용체 내부의 통로가 열리며 나트륨이온(Na<sup>+</sup>) 등이 세포 안으로 유입

된다. 이 과정에서 세포의 전위가 바뀌어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다.

·시냅스 가소성 : 학습이나 기억과정에서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변하는 것을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한다. AMPA 수용체의 수가 시냅스에 많아지거나 적어짐에 따라 신호전달효율이 결정되며, 이는 장기기억(LTP)과 같은 기억형성의 기초가 된다.

4) NMDA 수용체의 역할  
NMDA(N-methyl-D-aspartate receptor) 수용체는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의 생물학적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용체 중 하나이다. 이 수용체는 독특하게도 '화학적관문'과 '전기적관문'이 모두 열려야만 작동하는 이중자극 감문소 역할을 한다.

NMDA 수용체의 구조적인 역할과 작동기전은 다음과 같다.

- (1) 일치 탐지기(Coincidence Detector) 역할
  - NMDA 수용체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만 통로를 연다.
    - 화학적 조건 :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방출되어 결합해야 한다.
    - 전기적 조건 : 시냅스 후 뉴런이 충분히 탈분극(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소에는 마그네슘이온(Mg<sup>2+</sup>)이 통로를 꽉 막고 있는데, 세포가 활성화 되어야만 이 이온이 튀어나가며 통로가 확보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나 영양학적인 관점에서의 NMDA 수용체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신경독성을 방지하는 것은 인지기능 유지와 뇌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pngtree

(2) 칼슘이온(Ca<sup>2+</sup>)의 유입통로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Na<sup>+</sup>) 뿐만 아니라 칼슘이온(Ca<sup>2+</sup>)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이 칼슘 유입이 NMDA 수용체만이 가진 핵심적인 차별점이다.

세포 내로 들어온 칼슘은 단순한 전기신호를 넘어 세포 내부의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신호탄 역할을 한다.

·이 신호에 의해 앞서 설명해 드린 시냅스 가소성(LTD)이 유도된다.

(3) 기억의 형성 및 유지  
NMDA 수용체는 일시적인 자극을 장기적 변화로 바꾸는 '스위치'이다.

·장기강화(LTP) 유도 : 칼슘 신호를 통해 시냅스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강화하여 기억이 저장되도록 돕는다.

·신경망 최적화 : 반대로 자극이 약할 때는 시냅스를 약화(LTD)시켜 뇌의 회로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4) NMDA 수용체 이상과 질환  
NMDA 수용체의 활성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뇌건강이 치명적일 수 있다.

·흥분성 세포독성(Excitotoxicity) : 수용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뉴런이 손상되거나 사멸된다. 이는 뇌졸중이나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된다.

·인지장애 :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NMDA 수용체는 마치 중요한 정보이나 반드시 기억하라고 세포에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과 같다. 이 수용체는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보조인자인 글리신(Glycine)이나, 수용체 억제제로서 일상에서 쓰이는 차매 치료제인 맨탄틴, 항우울제 및 마취제인 케타민 등이 있다.

(5) 흥분성 세포 독성의 위험성  
NMDA 수용체가 과도하게 열려 칼슘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면 세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효소를 활성화한다.

·뇌졸중 상황 : 혈류가 차단되면 뇌에 글루타메이트가 쏟아져 나오며 NMDA 수용체를 과자극한다. 이로 인해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신경세포 사멸이 일어난다.

·보호전략 : 이를 막기 위해 NMDA 수용체 및 항제를 신경보호제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NMDA 수용체는 뇌의 '학습 스위치'인 동시에,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엔진'과도 같다.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나 영양학적인 관점에서의 NMDA 수용체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신경독성을 방지하는 것은 인지기능 유지와 뇌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계속>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은혜 한 장**

그러므로 우리는 공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rews 4:16

基督日報  
기독교일보 www.cdaily.co.kr

**ILITE**

하늘이 선물한 신비의 물질,  
일라이트로 피부를 정화시켜주세요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큰열매모자반"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2년 전통발효한 감발효 원액 함유  
비건 VEGAN 인증 소재 함유  
천혜의 광물, 일라이트 함유

### 교계·선교·NGO 동향

#### 교계

2026년 3월 9일(월) 한국기독교 주요 일정			
시간	구분/단체	행사명	장소
전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0년 생명목회 순례위원회 제110-2차 회의 및 워크숍 (3.9-10)	제주 남원교회
11:00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 예배 및 사역 모임	여전도회관 2층 대강당
17:00	해외한인장로회 (KPCANE)	동북노회 제46회 정기노회	은혜교회
14:00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전국 지역대표단 워크숍 개최 (3.9-11)	주관 측 공지 장소
마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2026 올해의 녹색교회 선정 신청 접수 마감	해당 부서 접수처
11:10	CTS기독교TV	7000마라톤 '열방을 향하여' 본방송 (재방 15:40)	CTS 채널

2026년 3월 9일, 한국기독교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다양한 행정 및 선교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노동사회처는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남원교회에서 '10년 생명목회 순례위원회 제110-2차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을 주제로

정기 예배 및 사역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해외한인장로회(KPCANE) 동북노회는 오후 5시 은혜교회에서 제46회 정기노회를 개최한다. 이번 노회에서는 제46회 임원 보고와 사찰회 교제, 신규 회원 및 교회 가입 심의, 목사·장로 고시 정원 확인 등의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오후 2시 '100

만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국 지역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한다.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3월 11일까지 사흘간 이어나간다.

행정 일정으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후정의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공동 추진하는 '2026 올해의 녹색교회' 신청 접수가 이날 마감된다.

#### 선교

2026년 3월 9일(월) 선교단체 및 연합기관 주요 일정			
단체명	구분	세부 내용	시간 및 장소
FCUTS	학사 일정	2026학년도 불학기 3주차 수업 진행 (영국의 역사, 시가서, 한국어 등)	10:00 ~ 17:30, 교내 강의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지속 사역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2차 등록 및 MK 프로그램 접수, 숙소 지원 심사	(상시 행정) 뉴욕 대회 준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지속 사역	요르단 등 중동 정세 긴급 홍보기도, 해외선교사 패키지 보험 지원 및 행정	(상시 행정) 홈페이지 및 사무국

2026년 3월 9일, 국내외 주요 선교연합단체와 교육기관 등 각자의 영역에서 확정된 사역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한인장로회(KPCANE) 동북노회는 9일 오후 5시 은혜교회에서 제46회 정기노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또한 신학 교육기관인 FCUTS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영국의 역사, 시가서, 한국어 등 불학기 3주차 정규 수업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오는 5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위한 2차 등록 및 MK 프로그램 접수 업무를 이

어나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과 해외선교사 보험 지원 등 행정 지원 중동 정세 관련 긴급 홍보기도 캠페인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 NGO

2026년 3월 9일(월) 기독교 NGO 주요 사역 일정		
단체명	주요 일정 및 사업	세부 내용 및 시간
지파운데이션	상반기 '같이상점' 파트너 모집	2차 기관 모집 개시 (3월 9일 ~ 3월 20일)
	제5회 '나눔웃장' 캠페인	전국 협약 기관 대상 자원 선순환 활동 (운영 6일차)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 무료 급식	09:00 ~ 15:00 (준비, 배식, 정리 및 행정처리)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 가정 긴급지원 사업	'희망동지 SOS' 68차 및 '기대드림' 32차 심사 집행
월드비전	필란트로피 운영 및 실무	고액 후원자 예우 및 'E-Share' 친환경차 사업 실무

2026년 3월 9일 월요일, 국내외 주요 기독교 NGO들은 상반기 핵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과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 구호 사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지파운데이션은 3월 9일부터 '2026년 상반기 상생형 수익사업 [같이상점]'의 2차 파트너 기관 모집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복지 현장과 NGO가 협력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소외된 이웃에게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로, 오는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당일 전국 협약 기관에서는 기부

의류를 배분하는 '제5회 나눔웃장' 캠페인이 운영 6일차를 맞이하며 사역을 지속한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서울 청량리에서 오전 9시부터 노숙인 및 무의탁 노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일 무료 급식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3월 9일 기준 '희망동지 SOS' 68차 긴급 지원 건에 대한 심사와 집행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체류 위기 이주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승연 기자

## “나이가 선물” 제4회 시니어 사역 연합컨퍼런스 열린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신앙 축제인 '제4회 전국 시니어사역 연합컨퍼런스'가 오는 4월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에서 열린다.



'나이가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CSMA 전국시니어사역연합회가 주관하고 우리들교회 SG공동체와 조이풀시니어(18개 협력기관 모임)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평생 가정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시니어 성도들이 인생 후반기를 신앙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사명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강의 중심 세미나를 넘어 말씀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영적 축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말씀은 우리들교회 담임인 김양재 목사가 전한다.

김 목사는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온 모든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며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시니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조이풀 타작마당'에서는 추억의 민속놀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또 '커피 한 잔의 주인공 배인순 권사의 간증과 감성적인 음악 공연이 이어져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사장 로비에서는 건강 관리 정보와 시니어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건강·선교 박람회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노년기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은퇴 이후에도 사명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선교 사역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시니어 세대는 교회와 가정을 지탱해 온 믿음의 기둥"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인생 후반기가 사명의 시간이자 가장 아름다운 계절임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 신청은 3월 30일까지 조기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1만 원이며 이후에는 1만 2천 원이다. 신청은 각 교회에 배포된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접수하거나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문의는 CSMA 전국시니어사역연합회(010-3927-1664(문자로만 가능))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 CTS '대한민국목회컨퍼런스', 3월 24일 장충교회서 개최

'루아흐 : 다시 숨 쉬는 목회' 주제로 목회자 마음 건강·관계·가정 회복 다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목회컨퍼런스(KCMC)'를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동호로 250에 위치한 장충교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루아흐 : 다시 숨 쉬는 목회'다.

KCMC는 급변하는 목회 환경과 사역의 무게 속에서 지친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목회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취지 아래 목회자의 마음 건강과 관계 관리, 가정 회복 등을 중심으로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눌 예정이다.

강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는 '지속 가능한 목회를 위한 관계 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 동양선교교회 담임 김지훈 목사는 '목사의 트라우마 경험과 회복'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심리학과 최은영 교수는 '목회자 가정, 하나님 앞에 함께 서다'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CTS 미래교회

연구소는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삶과 관계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목회 현장의 실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목회컨퍼런스 홈페이지(k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튜브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문의는 02-6333-0088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작은교회 청소년들도 선교 주인공”

## 위십퍼스무브먼트, 필리핀서 첫 연합 비전트립 진행

위십퍼스무브먼트(대표 주찬영 전도사)는 최근 필리핀에서 7박 9일 일정으로 ‘위스미션(With Mission)’ 비전트립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은교회와 미지리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연합 선교 사역이다.

선교팀은 필리핀 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섬김 활동을 펼쳤다. 참가 학생들은 가나곳의 쓰레기 마을과 타이 타이 인근 무덤 마을을 찾아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고, 현지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리 정화 활동과 도시락 나눔 등 지역사회 봉사도 이어졌다.

이번 선교는 위십퍼스무브먼트가 지난해 겨울 시작한 미지리교회 청소년 연합 프로그램 ‘위스캠프’에서 출발했다. 작은교회 청소년들이 신앙 공동체 활동과 선교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사역을 해외 선교 형태로 확장한 것이다.

참가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비용의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족한 비용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사역자와 스태프 4명도 자비로 참여했다. 일부 교회는 장학금을 마련해 학생들을 지원했고, 몇몇 청소년은 받은 장학금을 다시 선교비로 기부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제빵 클래스 등 모금

활동에 참여해 선교비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모인 참가 학생 10명 가운데 상당수는 청소년부가 없거나 혼자 예배에 출석하는 교회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뿐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포함됐다.

현지 사역을 경험한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또래들을 보며 신앙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 참가 학생은 “처음에는 단기선교가 단순한 일정처럼 느껴졌지만, 현지 아이들이 보여준 감사의 태도를 보며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됐다”며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무덤 마을과 쓰레기 마을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참가자는 “불평 없이 밝게 살아가는 현지 친구들을 보며 자신의 신앙 태도를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말씀 안에서 삶의 자세를 바꾸고 싶다”고 전했다.

선교팀 디렉터 박성원 전도사는 “학생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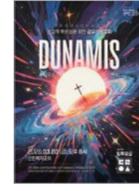
현지 사역 현장의 모습. ©위십퍼스무브먼트

다. 그는 특히 한 청소년의 변화를 언급하며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교회를 지켜오던 학생이 또래 공동체를 만나 기도와 찬양을 함께 하며 마음을 열고,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전했다. 위십퍼스무브먼트는 앞으로도 작은교

회와 미지리교회 청소년들이 세계 교회와 연결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합 선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 전도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학생들의 나눔이 모여 이번 선교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 선한목자교회, 팀북위십과 ‘금요성령집회’ 연다

‘두나미스’ 주제로 3월 20일 오후 8시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가 오는 3월 20일 오후 8시 교회 본당에서 ‘두나미스(DUNAMIS, 권능) 금요성령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제로 성령의 권능을 재확인하고, 다음세대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에서는 김다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세대 찬양 사역팀인 팀북위십이 찬양을 인도한다. 참가자들은 찬양과 말씀, 합심 기도를 통해 참례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회 측은 이번 집회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



지난해 ‘OVERFLOW’라는 주제로 열렸던 금요성령집회 모습 ©선한목자교회

씀처럼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과 청년들이 학교와 캠퍼스,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세대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동시에, 장년 세대에게는 다음세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로 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두나미스 금요성령집회’는 다음세대와 청년뿐 아니라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 빅콰이어, 청소년 대상 보컬 교육 무료 진행

가스펠 합창단 빅콰이어가 청소년들을 위한 보컬 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분기에 한해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

14년 전통의 빅콰이어는 그동안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해 온 가스펠 합창단으로 월드 콰이어 게인즈 뉴질랜드 대회와 강릉 대회 팝 앙상블 챔피언전에서 두 차례 연속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보컬 합창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이 아닌 집중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주 2회, 회당 180분씩 진행되며 한 달 기준 총 1,440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찬양 사역자와 대학교수, 프로듀서, 음악감독 등 보컬 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해 발성, 호흡, 표현력, 무대 매너 등을 체계적으



로 교육할 예정이다.

빅콰이어 대표인 안찬용 교수(서울장신대학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노래를 좋아하며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키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무료 보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눈에 띄는 실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향후 빅콰이어 정단원 활동을 비롯해 대중음악 아티스트 코러스, 콰이어 솔리스트, 찬양사역자, 예배 인도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이번 보컬 교육 프로그램은 율봄 분기부터 시작되며, 일정과 지원 방법은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GCM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빅콰이어가 주관한다. 문의 02-2608-7693 김진영 기자

# 해군사관학교 기독교관생도 졸업·임관 감사예배 성료

제80기 해군사관학교 기독교관생도의 졸업 및 임관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최근 해군사관학교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에는 졸업을 앞둔 기독교관생도들을 비롯해 군 관계자, 교계 인사, 가족들이 참석해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생도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예배는 닐시 찬양단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 교회 정상덕 목사의 인도로 회중이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며 예배를 이어갔다. 정일식 장로(해군해병대연합장로회)는 나라와 군을 위해 기도했으며, 한윤숙 권사(여전도회연합회)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후 거제고현교회 박정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을 언급하며 신앙

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은 에녹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다”며 “에녹의 삶은 세상적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인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에녹은 권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삶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라며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며 “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예배 이후에는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 전달 순서가 진행됐다. 박정근 목사(거제고현교회), 양동희 목사(진해기독교연합회), 정일식 장로(해군해병대장로연합회), 한윤숙 권사(해군해병대여전도회연합회)



감사예배가 열린 모습. ©거제고현교회

가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어 후배 생도들의 송사와 졸업생 대표의 답사가 이어졌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졸업생 대

표는 앞으로의 군 생활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행사는 MCF 입단 및 파송식과 함께 축하 만찬으로 마무리됐다. 노형구 기자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음악을 한다는 것

음악을 한다는 것은 도(道)를 닦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음악은 넓게는 작곡을 포함하여 모든 연주, 좁게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도를 닦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면 사부는 '도의 지름길'을 알려 줄 법도 한데 그저 머슴살이만 죽도록 시킨다. 물 길어오기 3년, 마당 쓸기 3년, 땀감 구해오기 3년, 경우에 따라 한 3년 정도 밥 짓기를 더 시키는 사부를 만나기도 하고 돌팔이 선생을 만나 얻는 것도 없이 1년 만에 속성 아닌 속성으로 하산을 하기도 한다.



김준희

다 보니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왜 들어왔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육체노동으로 몸만 튼실해졌을 뿐, 총기를 상실한 이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 물 길은 재미를 깨닫는 이가 있다. 아름다운 오솔길, 신선하고 맑은 공기,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 계절마다 바뀌는 숲속의 요묘한 풍경. 그것이 곧 수련의 즐거움인 것... 사부는 안다. 그들의 물 길어오는 표정만 보아도, 사실은 그 머슴살이가 바로 도 닦는 과정인 것이다. 음악가(피아니스트)가 되는 길도 그와 비슷하다.

음악을 하는 것이 무슨 신선놀음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큰 오산이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수려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기란 불가능하다. 때로는 걸음을 배우듯이 매우 느리게, 한 손씩, 때로는 한 마디를 가지고 몇 시간 이상을 연습해야 한다. 손끝에는 굳은살이 박이며 주먹을 쥐면 피아니스트임을 나타내는 특정부위의 소근육이 우뚝해 보일 만큼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10년, 20년에 얻을 것을 짧은 시간에 성취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들도 똑같은 시기를 거친다. 좀 더 빠르고 심오할 뿐...

피아노의 경우, 단지 한 음을 친다 해도 그 음을 누르는 각 손가락의 압력, 타건의 속도, 타건 시 닿는 손가락의 부위,

타치의 방향, 타건의 전동작과 후동작, 팔무게의 활용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수만 가지의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손가락 관절 역시 섬세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손끝의 감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피아노 치기는 소근육 운동인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은 잠시의 휴지기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수많은 풍나물(?)들과 각종 지시어들. 이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훈련-지구력과 체력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땀 빼지 않은 독에 차곡차곡 물을 채워가듯이 연습에 몰두하며 그 과정 자체를 뿌듯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음악가가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피아노는 두려운 존재, 싸워야 하는 존재가 아닌, 상호 소통이 가능한 친밀한 존재가 되며 음악적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음악은 (눈보다) 귀로 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된 이후에 쓴 베토벤의 곡들은 눈을 감아도 건반이 보이듯이, 귀가 닫혀도 소리가 들리는 단계에서 작곡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작품을 내면의 귀로 완전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볼 수 없다는 것



은 '들 수 없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만큼 예민한 음악적 귀는 필수이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악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주자는 진실로 그 음악에서 요구되는 이미지 톤이 무엇인지 예측,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귀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에 알맞은 톤 컬러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한 화가가 어떤 독특한 하늘의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파란 빛깔 중 그 하늘에 가장 적합한, 즉 꼭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정교한 빛깔을 찾아내는 과정과도 같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

소리인 양 노래하고 호흡하며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것. 이때 연주자의 타고난 것들이 빛을 발한다. 명민함, 순수함, 예민함, 감정의 풍부함과 표현력, 상상력, 창조력 등 연주자의 심성이나 성격이 연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까지 보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쓴 대사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연기자들을 훌륭한 배우라고 칭찬하지 않듯이 음악 또한 연주자가 악보를 단지 정확히 치기만 했다고 해서 그를 좋은 연주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 '무엇' '어떻게' 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주자의 표현 방식, 소리, 음악적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어떤 희열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지상에 서 천국을 맛본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끝으로, 연주자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스스로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음악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감동을 듣는 이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연주자와 듣는 이가 동시에 무아지경을 느끼는 순간이다.

아! 그러면 드디어 득음의 경지에 이른 것일까. 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음악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다. 음악을 통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더더욱 행복한 일이다. 그 찬양 중에 감지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행복감은 음악자체가 주는 어떤 희열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지상에 서 천국을 맛본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김준희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시러큐스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학, 피바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 하프시코드로 석사 후 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에 귀국하여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 (교회음악 실기과정)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은누리교회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피아니스트와 오르가니스트로 사역하였다.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반주자를 위한 찬송가 즉흥연주곡집 1, 2, 3』, 『생생 피아노 반주법 -대화로 배우는 교회음악반주』가 있다.

## 작은 교회도 예배 기획팀을 만들자 2



우한별

예배 봉사자에 대한 목양이 우선입니다. 하이테크를 다루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통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의 전달과 요청, 그리고 해결이 찬양팀과 엔지니어간의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일 중심적으로 변질되고 관계가 무너져 서로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목회자와 예배 기획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목회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음향 담당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며 예배의 근본인 소통을 예배 담당자부터 못하게 하

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하는 찬양팀과 엔지니어 간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고 공동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화합을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미디어팀을 포함한 예배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돕는 목양일 것입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같이 공부하자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 기획팀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한 달 안에 예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욕망이 작동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길게 보고 본질적인 교회와 예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교회를 공부하는 것이 예배의 이해를 깊고 넓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큐시트도 다르게 만들자  
중대형 교회에서 예배 시 사용하는 큐시트를 작성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음향, 영상, 조명, 강단으로 담당자 별로 구분하고 순서와 시간,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분 단위 또는 30초로 단위를 나눠 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에 압박이 있는데, 예배가 늦어지면 다음 예배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주차장의 차량이 영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쪼개는 표시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보여주고 참여시키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순차적 중심의 큐시트가 아니라 의미와 목적 중심의 큐시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예

배 기획팀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의미와 협동 작업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팀원이 들어와도 큐시트를 보고도 빨리 예배의 의미와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기획팀(미디어팀)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 기획팀, 또는 미디어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처럼 미디어 작업이 많지 않기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게 감당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예배 기획팀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같은 마음으로 작지만 튼튼하게 팀이 세워질 것입니다.  
◆ 우한별  
하이테크 예배 신학 연구소 소장 skylight69@naver.com, YAMAHA MUSIC KOREA 음향 및 마케팅 담당, 밴드 악기 팀장과 교회 지원 사업부를 기획해 발하였으며 SOVICO 교회 음향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교회 음향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업계에 만들어 지도록 촉진하였고 프로오디오 전문지 『SoundArty』, 『SOUND ON AIR』, 월간 『CHURCH MEDIA』에 교회 음향에 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기고하였다. 현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본질적 교회 회복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하이테크 예배 신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바른 예배 신학에 의한 미디어 사역을 전하고 있다.

##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 GOODTV '달리다꿈', 1,000회 맞아 4년간 5천여 명의 기도 제목 응답

## 실시간 현장 중보기도의 새 지평 열어

GOODTV(대표이사 김명전)의 대표 중보기도 프로그램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이 하 달리다꿈이 방송 1000회를 맞이했다.

GOODTV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신사옥 GL타워 오병이어 스튜디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기도를 주제로 1000회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1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룬 성과다.

'달리다꿈'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함께 기도하는 현장형 중보기도 프로그램이다. 지난 4년간 매회 평균 4~5명의 시청자가 전화로 연결됐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기도 요청지만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특집 방송에는 기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출연자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20년간 사찰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개종한 서재경 집사는 어머니의 투병을 계기로 '달리다꿈'에 기도를 요청하며 신앙을 회복한 사연을 전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하반신 마비를 겪은 아들이 기도를 통해 다시 걷게 된 김금자 권사의 사연 등 치유의 역사가 소개됐다.

진행을 맡은 이정기 목사(신나는교회)는 "지난



GOODTV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1000회 특집 방송 메인 화면 사진. ©GOODTV



1000회 특집 방송 진행 사진. ©GOODTV

1,000회의 방송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성도들의 눈물과 간구가 쌓여 만들어진 은혜의 역사"라고 소회를 밝혔다.

제작진 측은 "앞으로도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기며 중보기도 사역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지동 기자

# CGN '나침반Q' 첫 세미나 개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속 구원의 의미 조명

## 이재만 선교사 강연, 창조과학 관점에서 홍수 심판과 방주 해석

CGN이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 '나침반Q'가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은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 신관 3층 비전홀에서 열렸다.

'나침반Q'는 신앙의 현주소를 묻고(Question)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Compass)을 찾는 오프라인 강의 프로그램으로, CGN의 대표 콘텐츠인 '바울로부터', '방주타GO!' 등과 연계해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첫 강의에는 창조과학 전문가 이재만 선교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 선교사는 CGN 콘텐츠 '방주타GO!', '빙하의 일각' 등에 출연하며 창조과학을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그는 '과학으로 입증하고 성경으로 확인하는 창조의 신비'를 주제로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담긴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과학적·영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강의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방주 밖 이야기'에서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며 시작된 홍수 심판의 상황을 살펴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조명했다. 이 선교사는 화석과 지질 자료 등 오늘날 지구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이재만 선교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CGN



특별 세미나 '나침반Q' 진행 현장의 모습. ©CGN

홍수 이후 나타난 대변화기와 전 인류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인류 역사를 창조(Creation), 타락(Corruption), 격변적 홍수(Catastrophe), 바벨탑(Confusion), 그리스도(Christ), 십자가(Cross), 완성(Consummation)으로 구분해 강의했다.

이어진 2부 '홍수와 방주'에서는 당시 유일한 구원의 도구였던 방주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CGN 콘텐츠 '방주타GO!' 촬영을 통해 방만한 실물 크기 방주 체험관 '아rk 인카운터(Ark Encounter)' 자료를 활용해 참석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체험하도록 도왔다. 강의에서는 홍수와 방주를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성경적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재만 선교사는 "방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생존 가능한 유일한 장소였다"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수와 방주를 통해 성경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며 "과거의 물 심판을 기억하며 앞으로 임할 불 심판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침반Q'는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CGN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출연자인 최종상 선교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와 초기교회의 탄생 비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CGN은 앞으로도 성경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고 흥미로운 오프라인 강연을 다양한 주제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지동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새중요교회 40 하나님의 손길(57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께 간구하라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다시 보는 명실(74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김재원의 광야예찬(4회) 김의신 의학박사
	6:00 00 생명의 말씀 진주초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2) 30 생명의 말씀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사애헤럴(권준)	50 하용준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아직목)(16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God is Love(18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7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7:00 00 CTS뉴스(33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신앙인의 나라 사람 (에스더 4:8-16)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 새롭게 사라라(로마서 12:1-2)	20 행복한 쉼터 이리신광 (권오국) 50 행복한 쉼터 소명중앙 (김대성)	30 유엔네컷(36회)	20 김동호 목사의 남마다 기막힌 새벽(586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5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송병렬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7회)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6회) 시편 25-29편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행복한 쉼터 삼천포 삼한 (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화백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4회)	00 하나님의 음성(180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49회) 고린도전서 28강	00 고평역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트(45회) 기독교 시 이야기 30 비전메시지 새침교회 김원영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359회) 성공과 돈독에 빠져 있다면...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전원희 목사	00 GOODTV 특별기획 이슬람 속 기독교 뿌리 마디바를 가다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 (이제일)	0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107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2회)	10 새롭게하소서(11412회) 배우 이자은	00 성지가 좋다(520회) 광야의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다 30 성경 속 전쟁사(13회) 세겜에서 시작된 피의 왕국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우람장로교회	00 사랑의 꽃 필 때(24회) 류수영 목사	20 THE NEW 하늘빛향기(21회)	00 파이낸셜(215회) 20 하나님을 기쁘게 7004(99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오후	11: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67회) 세네갈 피터 최재은 선교사 50 신앙예배이 승호동 목사(부산중무교회)-무녀님의 소식이 들려올 때	00 비전설교 가나안 (장경덕) 30 비전설교 베이직 (조정민)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36회) 50 예수동행일기(11회)	20 세상을 보는 창(300회) 50 만나(1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6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4강 육중서신 I : 십자가로 이기셨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69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유희 목사
	12:00 00 CTS뉴스(33회) 3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외에 주리고 목마른 자	00 사랑의 메시지 백승 (이순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신용대)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회) 20 [말씀] 이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20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리시(조성영)	20 고평역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트(45회) 기독교 시 이야기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영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30 신앙예배이 원보연 목사(가제하늘빛침례교회) 40 서정희의 매일성경(6회) 편 25-29편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 (전담양) 30 행복한 쉼터 총일 (박상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20회)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583회)	00 율포원(716회)	30 성지가 좋다(520회) 광야의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다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원더풀우먼(21회) (내려놓음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큰 계획) MC김정화 사모	00 2025 다나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침례교회)(657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열) 30 CBS 아카데미 숲(211회)	00 새예배 강단 소강석 목사
	15:00 4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67회) 세네갈 피터 최재은 선교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류용열 목사(와성중앙장로교회)(298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448회) 민수기 25강	00 만나 워십 감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GOODTV 특별기획 노보산에 남겨진 모세의 기적을 찾아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 (안병찬)	00 하용준 목사의 창세기 강해(42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25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60회) 50 만나는 교회(27회)	00 내 삶의 행복(198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
저녁	17:00 00 생명의 말씀 풍성한-김성곤, 솔로몬의 아가 (2) (아가 1:1) 30 생명의 말씀 소명중앙-김대성, 승리의 법칙 (스가라 4:4-8)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 (조이엘)	30 2025 온누리 미래 & 가족 축제(1회)	50 영혼의 양식-산위의마음(김영준)	00 플라보르(8회) 요셉 1 4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감남중앙-장찬영, 어둠에서 빛으로 마침내 새창 조까지(요한복음 9:1-12) 30 신교회행진(1회) 순복음삼마교회	10 시토파(8회) 12세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10 레디온(175회)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101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중앙(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20 더 초준 시즌5(더빙)(3회) 비에 15세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 (김양재)	30 방주타GO!(2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추학산)	00 성지가 좋다(520회) 광야의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다 30 복음강단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수지기쁨-김원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마가 복음 4:21-34)	00 더 메시지 소진우 10 비전설교 해석 (정명호) 40 김신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특독 50 윤호근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바울로부터(3회)	0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50 크리스찬칼럼, 중앙성결(한기재)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초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해 위의 삶을 사십시오 30 서정희의 매일성경(6회) 시편 25-29편 50 CTS뉴스 3/9(월)	4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뉴저지온누리교회-(11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49회) 고린도전서 28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61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09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전원희 목사, 예레미야 2강	00 GOODTV 특별기획 광야 속에 숨겨진 생명의 숲 30 명사들의 명강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홍선, 은혜로군(53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12회) 배우 이자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8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43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1강 육중서신 I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 구약(22회)
23:00 10 별세 목회자 이종표 목사의 죽어아 산다 5강 별세의 가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이단 사이렌	10 쟈센 프랭클린의 부흥(504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회)	10 더 콜링(122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46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5회)	00 장충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버티 워십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7회)	
	24:00 00 Calling GOD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 기도 퓌대를 향하여	10 아서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5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3회)	10 2025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18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42회)	00 새예배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CTS특집다큐 한국 성지순례 별별이야기 1부 20 CTS특집다큐 한국 성지순례 별별이야기 2부 35 CTS특집다큐 한국 성지순례 별별이야기 3부 50 워킹온다바이블-성지탐방(3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가 백석대 장중훈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27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왕남교회)(572회)	00 CBS 아카데미 숲(211회) 40 일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17회)	00 만나 U(20회)
	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3558회)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의 목사(백산교회)(413회)	30 TV강단 시온(박성준)	00 만나 워십 감병삼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전원희 목사 50 할리스토틀(94회) 본캐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220회) 3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377회)	00 만나는 교회(27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육한홍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할리스토틀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건영)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525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455회) 레위기 10강 50 CBS 교회소식(1041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5회) 이창의 목사 30 C채널 명실교 다시 복음으로(57회) 새예배교회 소강석 목사